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63호

Monday, July 8, 2024 A

폴더블 액정 1위, 첨단논문 1위 차이나테크 전방위 역습



이공계 박사배출 미국의 2배 넘어
연봉 30배 보상, 해외인재 흡수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崛起·우뚹 일어섬)가 미국을 추월할 기세다. 저가 공세와 기술 베끼기에 능한 추격자 이미지를 벗고, 개구리가 점프하듯 훌쩍 성장하며 첨단기술 최강자로 자리매김하려는 모습이다.

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중국 첨단기술 학계의 연구 수준은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 영국의 과학학술지 네이처의 '2024 네이처 인덱스'에서 중국이 올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한국은 작년과 같은 8위에 머물렀다. 전 세계 최상위 학술지 145종에 지난해 게재된

논문 7만5707편을 분석해 영향력을 점수화한 결과다.

연구기관별, 대학별 순위에서도 중국의 위상은 세계 톱 수준이었다. 연구기관 중 네이처 인덱스 세계 1위를 차지한 중국과학원 등 10위권 내 7곳이 중국의 대학 부설 및 정부 연구소들이었다.

미국 하버드대(2위),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3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7위)는 겨우 10위 안에 들었다. 대학들의 연구 수준도 중국이 앞섰다. 1위는 하버드대학이 차지했지만 2~9위는 중국 대학들이 휩쓸었다. 100위권 이내에 든 국내 대학은 서울대(54위)와 KAIST(76위) 2곳뿐이었다.

이 같은 연구성과는 탄탄한 이공계 인력풀에서 나온다. 미국 조지타운대 안보·유망기술센터(CSET)에 따르면, 내년에 중국이 배출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박사 인력은 8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미국의 연간 박사 배출 규모의 2배가 넘고, 미국 시민권자 출신 박사 규모와는 4배 차이난다. 학부생까지 포함한 전체 인력 역시 중국이 450만 명으로 인도(250만 명)와 미국(60만 명)을 크게 앞선다. 국내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중국의 각 지방 성마다 서울대·KAIST 수준의 명문대가 있어 이공계 인재 육성기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박해라·심서현 기자

'검사탄핵' 이틀뒤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

(국회 발의)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의혹 관련 소환일특정 안해...야당 "검사방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이재명(사진) 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 의혹으로 이 전 대표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국면 전환쇼"라며 반발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표 부부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4일 이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구두로 출석을 요청한 데 이어 5일 우편으로 출



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한다. 소환일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를 4~5개씩 제시하고 출석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하던 2018~2019년 부부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소고기와 과일·초밥·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최모란 기자

>> 2면 '이재명 부부 소환'으로 이어집니다

한동훈 "연판장 돌릴 테면 돌려라"

(후보 사퇴 요구)

여권 '김건희 문자' 공방전 확대
원희룡 "전문 공개하거나 사과를"

김건희·한동훈 문자 논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의사를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후보에게 문자로 보냈지만, 이를 '읽씹'(읽고 무시)했다는 논란이다. 한 후보 측은 배후로 친윤계를 지목하며 "전대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전대 개입은 없다"고 일축했다.

문자 논란이 확산하자 7일 일부 친윤계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한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당선관위의 경고를 받고 취소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박종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 등이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회견에 참석해 달라는 전화를 돌렸다고 한다. 친윤계 현역 의원의 주도 아래 40명 안팎의 당협위원장이 호응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한 후보 측은 반발했다.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원의 당협 위원장들이 '한동훈 사퇴 기자회견에 참석할 거냐, 안 할 거냐'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한다"며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짓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도 페이스북에 "제가 공격 사과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일부 정치인이 연판장을 돌려 사퇴 요구 회견을 준비중"이라며 "여론이 나쁘다고 취소하지 말라"고 직접 나섰다.

손국화·윤지원 기자

>> 2면 '김건희 문자'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용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물받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통상 수사” “국면전환 쇼”... 검찰·거야 정면충돌

법인카드 의혹 조사, 2년5개월만 이 대표 출석 땀 7번째 검찰 소환

▶ 1면 '이재명 부부 소환'에서 이어집니다

또 배우자 김씨에게 경기도 관공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하고, 김씨의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배씨를 법적 근거 없이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대선을 한 달 앞둔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내일부터 야당 전대후보 등록 7일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앞에 새 지도부를 뽑는 8·18 전당대회 예비후보자 등록(9~10일) 공고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김씨는 같은 혐의로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조씨는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고, 수원지검이 이를 넘겨받아 수사에 왔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이후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가 검찰 출석에 응한다면 일곱 번째 검찰 조사가 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한 차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대선 당시 법인카드를 민주당 의원 등의 식대를

계산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검찰 조사를 받았었다.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검찰독재정지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소환 통보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라며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쇼”라고 주장했다. 또 “정권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야당 대표를 탈탈 터는 행태야말로 대통령을 지키고 비위 검사들을 지켜내겠다

는 전형적인 방탄수사이자 직권남용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대북 송금 및 돈봉투 수사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 이틀 만에 검찰이 이 전 대표 부부 전격 소환을 통보한 건 누가 봐도 반격하는 모양새”라며 “거야와 검찰의 정면충돌로 정국 혼란이 가속화될까 봐 우려스럽다”란 반응을 보였다.

최모란 기자

친한 “자해극 본질은 문자 유출” 친윤 “불리하니 전대개입 주장”

▶ 1면 '김건희 문자'에서 이어집니다

회견이 취소된 후 사의를 표명한 박정호 의원은 “부탁을 받고 지인 두 명에게 참여의사를 물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친한계 박정호 의원은 “자해극의 본질은 ‘읽씹’이 아닌 문자 유출”이라며 “읽씹이 대역죄인 양관을 벌인 세력은 얼치기 충성파”라고 했다. “호기호위하려고 대통령마저 위협에 빠뜨리는 사람들”(장동혁 의원)

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이날 저녁 김 여사가 보낸 일부 문자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한 후보 측은 “당시 공적 채널을 통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고, 이를 이유로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다”며 “정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을 당 대표 선거에 활용하는 움직임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7일 부산을 방문한 원희룡 후보는 “이슈를 피하려고 당무 개입으로 몰아가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려 안 된다”며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든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와 대통령실은) 이미 루비론장을 건너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자 내용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한 후보는 5일 “김 여사의 문자는 사과하기 어려운 사정을 강조하는 취지”라

고 했는데, 원 후보는 “문자 전문을 공개하라”고 받아쳤다. 원 후보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쪽과 한 후보)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이라며 “문자를 공개해 진실을 밝히거나 사과하라”고 했다.

친윤계 중진 의원도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를 두고 ‘사과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하다가, 이제는 불리하니 “전대 개입”을 주장한다”며 “검찰 때는 수시로 소통해 놓고 지금은 사적·공

적 통로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는 김 여사와 기회마저 날린 무책임한 아마추어고, 원 후보는 무모한 아바타”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후보는 “두 사람 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민생·미래비전·정책이 실종되고 일차원적 다름만 남은 108석 여당의 한심한 전당대회”라고 꼬집었다. 손국희·윤지원 기자

윤 대통령, 내일 한·미동맹 상징 ‘펀치볼’ 국립묘지 찾는다

(한국시간 기준)

(하와이 오아후섬)

나토정상회의참석, 11일까지 방미 한국전사 전사한 1만여 명 잠든 곳 역대 대통령, 하와이 방문 때 꼭 참배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선 29년 만에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는다.

특히 현지시간 8일 예정된 미 태평양 국립묘지 방문은 한·미 동맹의 상징적 행보가 될 전망이다.

하와이 오아후섬 사화산의 분화구에 위치해 움푹한 그릇(Punch Bowl)을 닮아 ‘펀치볼’ 국립묘지으로도 불리는 이곳엔 제1·2차 세계대전부터 베트남

전쟁까지 전쟁 중 산화한 6만3000여 명의 미군 유해가 안장돼 있다.

그중 1만여 명은 6·25 전쟁 때 낮선 한국 땅에서 목숨을 잃었다. 휴전된 지 71년이 지났지만 이곳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652명(2018년 미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 집계)의 무명용사도 묻혀 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탓에 ‘X-0000 O’라는 코드를 부여받은 이들은 ‘US UNKNOWN KOREA’(한국전 무명용사) 묘역에 잠들어 있다. 묘역에 미군만 있는 건 아니다. 이름뿐 아니라 국적

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던 한국군도 제법 있었다.

지난해 7월 서울공항을 통해 고국 땅을 밟은 6·25 국군 참전용사 유해 7위(位) 중 3위는 이곳 펀치볼 묘역에 안장돼 있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봉환식에 참석해 유해를 실은 공군 특별수송기 시그너스(KC-330)를 직접 맞이했다.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한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역대 한국 대통령은 하와이를 방문할 때면 어김없이 태평양 국립묘지를 참배하곤 했다.

수많은 6·25 참전용사가 잠들어 있고, 알링턴 국립묘지와 함께 미국의 양

대 국립묘지로 꼽히는 만큼 한·미 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나토 정상회의 참석, 핀란드 등과 연쇄 양자회담에 이어 11일 나토와 미국·유럽 5개 싱크탱크가 공동 주최하는 나토 퍼블릭포럼의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글로벌 안보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5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과 AP4파트너(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간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워싱턴 날씨 (°F)

9일(화)	97~79	12일(금)	83~72
10일(수)	95~77	13일(토)	89~72
11일(목)	91~74	14일(일)	94~74

7월 8일(월) 96~76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진료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 의사의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드론의 꿈, 차세대들에게 전수”

2024 KSEA 드론대회 시상식 성황

재미있는 과학자협회(KSEA) 워싱턴 메트로 지부 (회장 김교원)는 지난 4일 2024 KSEA 드론대회 시상식을 거행했다.

대회는 KSEA에서 주최하는 전국 대회로 미국 전역의 중고등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드론을 조립 및 코딩 하고 아이디어 발표 등으로 경쟁해 3팀이 결선 팀으로서 선정 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버지니아에서만 2팀이 결선팀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결선 진출 전국 1위 팀(안나 서, 케이티 쉐, 다나 지아, 존 우, 에밀리 허)과 전국 3위 팀(레이첼 리, 매튜 한, 미셸 김, 엘리스 신, 애린 손)에게는 버지니아 법무장관 제이슨 미야레스가 수여하는 '법무장관 상'이 전달됐다.

로컬 1위 팀(에이든 게일스, 로버트 윤, 크리스 리, 엘린 곱, 엘레나 서)에게는 아이린 신 주하원의원 상, 로컬 2위 팀(에이든 강 외 4명)과 3위 팀(조셉 윤



드론대회 수상자 및 시상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4명)은 각각 KSEA 챔퍼 회장상과 부회장 상을 받았다.

크리스 리 (맥클린고 10학년)와 엘린 곱 (센터빌고10학년)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KSEA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류재현 교수(아이다호 대학)는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헤롤드 변 VA법무장관실 선임보좌관은 “학부모의 뜨거운 교육열 그리고 KSEA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자라나는 한인 2세대들이 STEM 분야

에서 더욱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학부모들과 KSEA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한편 시상식에는 지부장인 김교원 박사(NASA 연구원)을 비롯, 부회장 이학승 박사(Medical AI 최고경영자), 갑태인 박사 (존스홉킨스/KAIST 겸임교수), 전임지부장 차재평 박사(국립어린이병원 교수), 류영준 박사(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원) 등 KSEA DC 지부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며, 참석자들에게 STEM 커리어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시간도 가졌다.

박세용 기자

연방정부 고위직, 백인비율 높아져

청년세대 공무원 기피현상 여전

유색인종 연방정부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백인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인사처(OPM)이 자료에 의하면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공무원 중 백인은 60%, 유색인종은 40%였다. 연방정부 공무원을 하위직(GS6 등급 이하)과 중상위직(GS7 등급 이상)으로 구분할 경우, 하위직은 유색인종이 원래의 비율보다 더 많았으나 중상위직은 백인이 월등했다.

연방정부 최상위 직군인 SES 공무원의 경우 백인이 74%, 유색인종이 26%였다. 유색인종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1%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남녀간 차이도 상당히 컸다. 전체 연방정부 공무원 중 남성 대 여성 비율은 55% 대 45%였으나 SES 공

무원은 65% 대 35%였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SES 고위직 인플레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회계연도 SES 공무원이 272명 증가해 총 7753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SES 공무원의 고령화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0회계연도 SES 공무원의 은퇴 신청 가능자 비율은 40.6%였으나 2023회계연도에는 79.8%로 증가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연방정부 공무원 기피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점도 우려된다.

미국 전체적으로 30세 미만 노동 인구비율은 19.8%이지만, 30세 미만 연방정부 공무원 비율은 전체 공무원의 7.4%에 그치고 있다. 반면 50세 이상의 경우 전체 노동시장은 33.2%, 연방정부 공무원은 42.5%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김옥채 기자

VA 리치몬드-NC 랠리 고속철도 공사 기공식

총공사비 13억달러

방정부가 11억달러 지원



피터 부티지그 장관이 쿠퍼 주지사 및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랠리-리치몬드 프로젝트 착공식을 갖고 있다.

버지니아와 노스 캐롤라이나의 수도인 리치몬드와 랠리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떴다.

버지니아와 노스 캐롤라이나는 기존의 화물열차 선로를 매입해 여객 운송용 열차 운행을 위한 궤도 개선 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피터 부티지그 연방 교통부 장관은 기공식을 통해 “이 철도는 단순한 여객 철도용이 아니라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전단계 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총공사비 13억달러 중 11억달러를 지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인프라 법률을 통해 총 1조 달러를 투입해 전국의 노후화된 도로와 다리, 철도, 항만 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 공사는 오는 2030년 완공될 예정이며, 더 나아가 리치몬드에서 워싱턴DC를 연결하는 남부 대서양 고속철도 사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연방당국은 현재 워싱턴에서 뉴욕을 거쳐 보스턴에 이르는 고속철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L.A., 시애틀-캐나다 밴쿠버, 텍사스 달라스-휴스턴, 올랜도-마이애미 구간의 고속철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보스턴 공사는 모두 457마일 구간으로 기존 철로의 일부 시설 개선을 통해 시속 160마일 속도의 개량형 애셀라 열차를 투입할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팔레스타인 옹호 시위 UVA 학생 졸업 유보

학생자치기구 통한 징계 추진

지난 5월 버지니아 대학(UVA)의 팔레스타인 옹호 시위를 주도했던 4학년 학생 4명이 졸업 요건을 갖추고도 아직까지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전국적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옹호 시위가 발생했으며 UVA에서도 광장에 텐트 노숙 시위가 전개됐다. UVA는 졸업식을 핑계로 버지니아주립경찰에 시위대 해산을 요청했으며 주립경찰이 5월 6일 진압에 성공했다. 대학 측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은 학칙에 의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학생 11명을 학생사법위원회(UJC)에 회부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11명 중에는 4학년 졸업예정자도 포



2024년 5월 4일 토요일, 버지니아 대학교 운동장에서 시위자가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드는 것을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

함돼 있었는데, 졸업식 전에 진행된 불법시위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졸업이 유보된 상태다. 이들은 대학 측의 치졸한 보복행위로 인해 취업도 불가능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학생처 등을 통한 공식적

인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학생자치기구인 UJC를 통한 징계를 청구해 비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수의 교수들은 UJC가 학생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부 징계를 하는 있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UJC의 징계 결정은 9월 이후로 미뤄진 상태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졸업이 불가능하거나 정학, 퇴교 조치 등도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4월 이후 25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체포됐으나 졸업생의 졸업유보 조치는 UVA가 유일하다.

UVA에서는 올초부터 유대인 학생들과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들 간에 마찰이 계속돼 있으며 이번 사태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윤미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곽태우 변호사

“K 로펌을 소개합니다!”

K 로펌의 곽태우 대표변호사는 상업 및 이민법 전문변호사입니다.

2002년부터 곽 변호사는 비즈니스 구조화에서부터, 사업체 매매, 상업부동산 매매 및 상업이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중소기업을 도왔습니다.

또한 미국에 11살때 온 한인 1.5세로 최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되어 국제거래법을 가르쳤으며, 이후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DC 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 각종 미국연방법에 관한 자문과 기업체에 적용되는 연방, 주세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더불어 모든 사건에 전적인 관심과 최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약력

- 버지니아로 1980년 이민
- 뉴욕주 로체스터대학(이스트만), 동대학원
- 시카고 게렛신학대학원
- 시애틀대학 로스쿨 법학박사(JD)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음악감독(전)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전)
-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총영사관 자문변호사(전)
- 버지니아,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

K 로펌 K LAW FIRM PLLC | 571.405.6540 | 7799 Leesburg Pike
www.alexkwakesq.com | alexkwakesq@gmail.com | Suite 1010 N
Falls Church, VA 22043

천사의 도시 MZ 세대 살기 고단하다

본지 새내기 기자의 한 달 가계부

20대 인구 10년 새 10% 급감
높은 임대료, 생활비 감당 안 돼
보험료, 개스비 내고 나면 헛웃음
돈 아끼려 영화도 반값 티켓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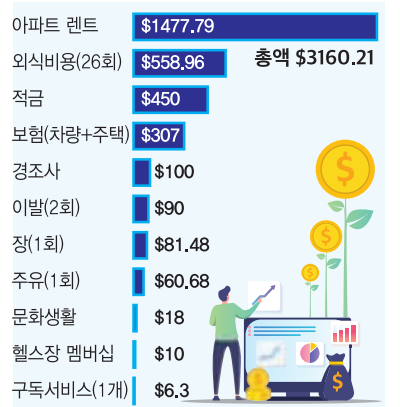


김경준 기자의 가성비를 찾기 위해 삼푸 한통을 사도 가격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다. 주유소에서 개스를 넣을때도 한숨이 나온다. 높은 개스값과 보험료 때문에 운전하는 게 부담이다. 김 기자가 차에서 휴대폰을 통해 적은 가계부를 보여주고 있다. (왼쪽 사진 부터)



김상진 기자

김경준 기자의 5월 지출 내역



LA를 누가 '천사의 도시'라 했다. 현실을 보면 천사라는 애칭이 무색하다.

LA타임스는 젊은 층이 모이는 도시라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LA 카운티가 고령화되고 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럴만하다. 높은 임대료, 치솟는 주택 가격,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문제 등은 젊은 층에 좌절감을 안긴다. 이는 출산율 감소, 교외 지역 이주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젊은 층이 LA를 떠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본지 김경준 기자의 미시간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다. 지난 1월 LA에 동지를 틀었다. 이곳에서의 삶은 만만치 않다. 지갑을 여는 게 무섭다. 젊은 층이 높은 생활비 때문에 LA를 외면한다는 뉴스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 김 기자의 뼈뚫한 한 달 가계부를 1인칭 시점으로 공개한다. (그래픽 참조)

USC 도웰 마이애스 교수(인구 정책학)는 LA의 고령화 현상이 "미래에는 매우 치명적인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20대는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라며 "그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우

려하고 있다.

기자도 20대다. 중요한 세대면 뭐하나. 좋아하는 파스트라미 샌드위치 하나 사 먹는 것도 LA에선 어려운 일이다.

LA한인타운 인근의 유명 델리 쉐인 랭거스(Langer's)에 갔다. 샌드위치 하나가 세전 기준 24달러다. 미시간 대학 캠퍼스에서 사 먹던 샌드위치가 그럽다.

한국에서 아버지가 전화로 묻는다. "LA사는 건 어때. 살만해?"

농담조이지만 현실을 담아 답했다. "아메리칸 드림은 커녕 '아메리칸 악몽'이에요."

매번 가계부를 적는다. 헛웃음이 나온다. 아파트 임대료는 가장 큰 지출 항목이다. 매월 첫날이 되면 '1477달러'가 은행 계좌에서 어김없이 빠져나간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4명이 함께 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다. 다시 말해 5900달러가 넘는 한 달 임대료를 룸메이트 4명이 나누어 내는 셈이다.

한국의 친구들은 LA지역 임대료 현실에 다들 놀란다. 젊은 층이 가장 많이

몰리는 한국 강남역에서 도보로 30초 거리의 오피스텔 월세도 이 정도는 아니다. 언젠가는 가정을 꾸려야 할 텐데 종잡돈을 모으기 힘든 상황에서 집을 산다는 건 엄두도 못 낼 것 같다.

사람 만나길 좋아하고 맛집 찾다니는 게 취미다. 가계부에서 엔겔지수(총 소비 중 식비 비율)가 높았던 이유다.

LA로 오고 나서는 엔겔지수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맛집 찾다니다간 되레 "굶어 죽겠다"라는 위기감이 생겼다. 비싼 음식값에 답까지, 게다가 대리 주차 비용까지 더하면 기가막힐 노릇이다.

최근 동료들과 한인타운 한 치킨집에 갔다. 치킨 두 마리에 68달러다. 대리 주차 때문에 5달러를 더 냈다. 팁까지 합하면 치킨을 먹는데 '100달러' 지폐 한 장이 우습게 날아간다. 지난 한 달 외식 비용을 합산해봤다. 총 558.96달러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전달과 비교했을 때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은 너무나 중요하고 고마운 제도다. 단, 요즘은 '도둑놈들' 같다. 매달

자동차 보험으로만 300달러를 지출한다. 회사와 거주지가 모두 한인타운이다. 통근 거리도 짧는데 보험료 산정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요즘은 돈이 '덜' 같다.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게 다 돈이다. 차가 없으면 발이 묶이기 때문에 짬을 마음껏 누리기 힘들다. 그만큼 주유 비용도 부담이다. 한번 주유할 때마다 '60달러' 가량 소요된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중간 연령은 현재 37.4세다. 지난 10년(2012~2022년) 사이 26세가 더 증가했다. 연령대로 나눠보면 20대는 이 기간에 무려 10.2% 감소했다. 10세 이하(-20.2%), 10~19세(-14.1%) 등 젊은 세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의 친구들과 통화하면 미국 생활에 대한 환상이 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팜 트리 가 가득한 말리부 해변 도로를 자주 드라이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이다. 한번 차를 운행할 때마다 개스비나가는 걸 생각하면 해변가 드라이브

는 꿈도 꿀 수 없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어쩔 수 없이 '집돌이'를 자처하게 된다.

문화생활도 사치다. LA에 온 이후 극장에서 영화를 본 건 단 두 번뿐이다. CGV는 매주 화요일 영화 티켓(18달러)을 반값에 판매하고 있다. 애치롭츠지만 LA에서 본 영화 두 편은 모두 '화요일'에 봤다.

골프장 멤버십도 있다. 축구를 사랑하는 20대다. 오는 27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널의 친선 경기가 LA에서 열린다. 물론 그림의 떡이다. LA에 살면 뭐하나. 영화 한 편도 반값 티켓인 '화요일'에만 보는 처지에 100달러가 넘는 축구 티켓은 사치다. 그들이 LA를 떠나는 이유는 명백하다. 한마디로 살기가 어렵다.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없다면, LA는 곧 악몽의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천사의 도시에서 진정 살고 싶었다. 김경준 기자

한인들 유럽 투어 붐... 소매치기 요주의

유럽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요 도시 방문 시 소매치기 등 절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보험회사 퀴트존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행객의 87%가 여행 중 도난,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유럽 주요 도시들을 방문할 경우 관광객들이 여행의 즐거움에 빠져 경계심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만큼 소매치기 범들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퀴트존의 여행 보험 전문가 티파니 밀리프는 설명을 통해 "유럽 도시들은 관광지도 유명해 올해도 여행객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타깝게도 소매치기의 위험 지역이기도 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4월 기준 방문자 100만명당 소매치기 피해가 가장 많이 언급된 국가와 관광 명소를 살펴보면 1위는 478건을 기록

여행 업계 "수법 다양해져" 가족 단위 절도 행각까지 한인 관광객들 피해 빈발



이탈리아에서 절도범들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난 로마의 트레비 분수.

한 이탈리아로 트레비 분수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위는 251건의 프랑스로 에펠탑 주변이, 3위는 스페인(111건)으로 바르셀로나 시내의 라스 랍라스 거리였다.

이 밖에 독일(111건의 브란덴부르크 게이트, 네델란드(100건의 레드라이트

디스트릭트, 포르투갈(58건의 알파마, 터키(21건) 술탄아메트 디스트릭트, 그리스(19건)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폴란드(18건) 쿠라쿠프 라이네 글로니 센트럴 스퀘어, 아일랜드(7건) 기네스 스토어 하우스 순이었다.

밀리프는 여행자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머니 벨트나 크로스 바디백 등 도난 방지 액세서리에 투자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전자제품, 고가의 보석, 중요한 문서 등 귀중품은 외출 시 호텔 금고에 보관하고 소매치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지역 한인여행업계에 따르면 펜데믹 회복 여행심리에 강달러 영향으로 지난해 6000여명의 한인이 유럽 투어에 나서는 등 유럽 여행 붐이 일고 있다.

아주투어 스티브 조 전무는 "혼잡한 여행지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요즘은 수법이 다양해져 팀을 꾸리든지 가족 단위로 절도 행각에 나서고 있다. 가이드와 인솔자가 있는 단체여행팀보다는 개별 여행객들이 절도범들의 타깃이 되는 경



평화를 기원하며 힘찬 타종 미국 독립기념일 248주년을 맞아 우정의 종 타종식이 4일 LA 샌피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열렸다. 팀 맥코스키 LA 15지구 시의원과 LA시, LA공원 관리국이 공동 주관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한국과 미국의 평화를 기원하며 힘차게 타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전무에 따르면 ▶관광객이 물려 붙는 곳이나 버스, 기차, 지하철 승차 시 앞뒤를 살필 것 ▶배낭이나 가방은 무조건 앞으로 메고 뒷주머니에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넣지 말 것 ▶현금보다 신용카드 이용 ▶식당, 특히 야외에 앉았을 경우 테이블에 스마트폰을 두지 말 것 ▶사진 촬영 또는 스마트폰 이용 시 피해

빈발 ▶여권 분실에 대비해 스마트폰에 카피본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된다.

이외에도 한국어로 말을 걸어온 후 선 물이라며 공예품을 주고 현금을 요구한다면 단정, 혼잡한 도로 바닥에 그림을 전시해 놓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팔았다며 돈을 달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 사진=박낙희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 파산**: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 이혼**: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 상속**: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 소송**: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적정도 많고, 공정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사무장 김진주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변호사 임종범

바이든 완강한 완주론에 더 커진 교체론... “치킨게임 됐다”

바이든 공개유세·인터뷰 나섰지만 사퇴요구 의원·기부자는 계속 늘어 “시간 촉박, 교체하명 공멸” 반론 속 이번 주 하원의원 회의가 분수령

조 바이든(81)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론을 잠재우기 위해 주말을 전후해 연이은 언론 인터뷰, 공개 유세 등에 나섰지만 건강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내는가 하면 인터뷰 질문 사전 조율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내 확산되는 공개적 사퇴론, ‘비(非)바이든’으로 돌아선 진보 성향의 주류 언론과 등 돌리는 고액 기부자

등 바이든이 처한 상황은 사면초가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완주’ 의지를 보이는 데다 11월 대선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환승’이 공멸을 부를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퇴론과 완주론이 첨예하게 맞선 형국을 두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양쪽 간 둘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 오후(현지시간) 공개된 ABC방송 인터뷰에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려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대선 레이스를 그만두겠지만 주님은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느냐’는 진행자 조지 스테파노폴리스의 질문에는 “예스, 예스, 예스, 예스”라고 네 차례

나 확인했다.

22년간 진행된 무편집 인터뷰를 두고 ‘폭망’ 수준이던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보다는 나왔지만 인지력 저하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평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경·인지력 검사를 받고 결과를 미 국민에게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 수행을 통해) 매일 인지력·신경 검사를 받고 있다. 누구도 인지력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TV 토론 이후 트럼프에게 더욱 밀리는 것으로 나타난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 진행자가 묻자 “저는 뒤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여론조사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대선 패배 시 내년 1월 어떤 기분이겠느냐’는 질

문에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바로 이 일의 의미”라고 답했다.

같은 날 경합주인 위스콘신 유세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꺾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프롬프터 도움을 받고 약 20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바이든은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거론하며 “아직 늦지 않았다. 40세처럼 보이지 않느냐”고 했다.

하지만 그의 확신과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6일 앤지 크레이그 민주당 하원의원이 성명을 내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로써 바이든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하원의원은 로이드 도켓, 라울 그리할버, 세스 폴턴,

마이클 퀴글리에 이어 크레이그가 다섯 번째가 됐다. 상원에서도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이 8일 바이든 후보 사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 교체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대혼란이 이번 주에 분기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오후 하키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 간사 등 핵심 하원의원들과 비공개 화상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후보 교체론이 집중 논의될 공산이 크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SNS에 “졸린 조”는 미국을 파괴하는 선거운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위싱턴=김형구 특파원

사퇴 압박 속 질 바이든 향한 시선도 ‘싸늘’

‘포기 불가’ 고집에 비판 고조 “주변 보호막 치고 외부 차단”

대선 첫 TV 토론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후보 교체론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배우자인 질 바이든 여사를 향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당내 동요 확산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이 완주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설득해낼 수 있는 사람 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완주를 독려하고 있다는 굵직한 시선이 바이든 여사를 향하고 있다.

바이든 여사는 TV 토론 사흘 후인 지난달 30일 패션잡지 ‘보그’에 민주당을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는 사퇴 압박과 관련해 “가족들은 그 90분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4년간 대통령으로서 시간을 재단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면서 ‘사퇴 불가’ 메시지를 전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TV 토론 뒤 바이든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는 분명했다면서 그것은 그들이 대선 레이스에 남는다는 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로이터]

라고 짚었다.

보수 뉴스 사이트 ‘데일리 칼라’는 바이든 여사를 권력을 위해 남편을 부추기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 속의 맥베스 부인에 빗대 ‘레이디 맥-바이든’이라고 부르면서 “남편이 자기 눈 앞에서 무너지는데 필사적으로 권력에 매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헤지펀드 거물인 빌 에크먼은 엑스(X-엡 트위터)에 “나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그 자신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릴 정신적 명민함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서 “잘못이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에게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TV 토론으로 81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인지력 저하 의혹이 증폭되면서 바이든 여사의 역할은 새삼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하이오 대학의 여성 역사학 교수이자 대통령 부인 전문가인 캐서린 젤리슨은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성패를 좌우할 순간으로 보이며, 질 바이든은 그 때 순간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여사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주변의 소수 측근 그룹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시간이 갈수록 소수보좌진은 점점 더 대통령 주변에 보호막을 치고 대통령이 언론이나 외부 조인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했다면서 이는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관리하고 그의 정치 활동을 밀착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한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소수 고위 보좌진 외에 누구에게도 조언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점점 더 고립되기 때문에 그것은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한 큰 위기)이 된다고 말했다.

‘성능 30배’ 엔비디아 신작 시칩 ‘블랙웰’ 이달 풀린다 반도체 수퍼사이클 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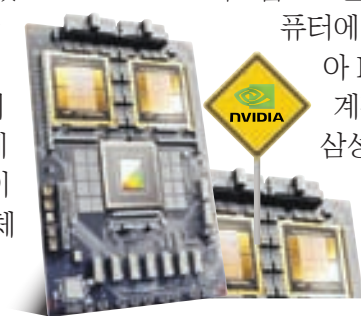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90% 가까이를 장악한 엔비디아가 신형 AI 칩 ‘블랙웰’을 출하한다. 인공지능(AI) 열풍 속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호황 국면에 본격 들어선 가운데, 차세대 AI 반도체가 시장에 공급되면서 유례없는 반도체 수퍼사이클(대호황)이 나타날 것이라 전망이다. AI 구동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전 세계 고성능·대용량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한 우리 기업의 실적에도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달 AI 칩 신제품 출하를 시작한다. 지난 3월 공개했던 신형 블랙웰 기반 AI 칩인 B100·B200 공급이 시작되는 셈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B100·B200이 이달 중순부터 서버 업체로 보내질 것”이라 말했다. 전 세계 1위 파

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에서 만들어진 엔비디아의 신형 AI 칩은 주요 서버 업체들로 보내져 완제품으로 조립된 뒤 3분기 내 데이터센터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 H100 출시 2년 만이다.

B100·B200은 엔비디아의 전작인 호퍼 아키텍처(설계방식) 기반의 H100의 성능을 뛰어넘는 차세대 AI 반도체다. H100과 비교해 최대 30배 뛰어난 성능을 낸다. AI 전쟁을 펼치고 있는 전 세계 큰손들은 ‘첨단 무기’에 비견되는 B100·B200을 차지하기 위해 입도선매에 들어갔다. 일본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AI 스타트업 xAI는 현재 구축 중인 수퍼컴퓨터에 내년 여름까지 엔비디아 B200을 30만 개 확보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권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uro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약조용)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홈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융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GS, Maryland State DILL,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6; VA MC-782; TX 2501870; PA 106823; FL MLD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극빈 가정, 16세 임신, 자퇴생... '영국 내각 2인자' 됐다

영국 부총리 겸 주택장관 레이너
“어머니 문맹이라 집에 책 없었다”
노동당 육아지원 1기생, 대학 진학
37세엔 장남이 딸 낳아 할머니 돼



16세 미혼모에서 영국 내각의 2인자가 된 앤절라 레이너.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현실주의자”라고 말하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레이너 페이스북)

열여섯 살에 임신해 학교를 자퇴한 소녀가 지난 5일(현지시간) 출범한 영국 정부의 2인자 자리에 올랐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키어 스타머 노동당 내각에서 부총리 겸 균형발전-주택 및 지역사회 담당 장관으로 임명된 앤절라 레이너(44)가 그 주인공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1980년에 그레이터 맨체스터주의 스토포르트에서 태어난 레이너는 빈한한 가정에서 자랐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어머니는 읽고 쓸 줄을 몰라 집에 책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집에 들어오지 않은 아버지를 대신해 조울증에 걸린 어머니를 열 살 때부터 돌봤다. 문맹이던 어머니 때문에 개 사료를 먹을 뻔한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탈선을 일삼았고, 열네 살 무렵엔 매일 밤 나이트클럽을 드나들었다. 열여섯 살에 임신하면서 학교를 자퇴했다.

그가 장남을 낳은 97년, 토니 블러어 노동당 정

부가 출범했다. 저소득층 자녀의 육아를 지원하는 교실이 열렸고, 레이너는 1기생으로 이 혜택을 받았다. 스토포르트 대학에서 수어를 배우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취업에도 성공했다. 노동조합 간부를 맡으면서 노동당에 입당한 게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됐다. 그는 2015년 총선에서 자신의 인생 전기를 마련해 준 노동당 후보로 출마해 맨체스터 애슈턴언더라인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노동당이 야당이던 시절 새도 캐비닛(에비 내각)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본인 스스로는 사회주의자로 칭하지만, 온건 좌파로 분류된다.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강경파여서 “경찰은 테러리스트에게 총을 먼저 쏘고, 질문은 그 다음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년 시절 반사회적 환경에서 받은 고통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열여섯 살에 첫 아들을 얻은 후 노조 간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또 얻었다. 2017년에는 장남이 딸을 낳으면서 37세에 할머니가 됐다고 알려졌다.

그녀는 노동자 출신이란 점을 숨기지 않는다고

한다. 속기사들에게 연설문을 매끄럽게 수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잘못된 문법조차) 그것이 나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한다. 영국의 정치 전문지 뉴스테이츠맨은 그녀를 2023년 영국 좌파 정치인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8위로 선정하기도 했다.

새 내각에서 흡수처 출신은 레이너만이 아니다. 스타머 내각 구성원 22명 가운데 상당수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자수성가형이다. 스타머 본인도 어린 시절 공공금을 못 내 전화가 끊긴 적이 있을 정도로 가난했다. 집안에서 대학에 들어간 것도 스타머가 처음이다. 여성을 고위직에 대거(6일 기준 절반인 11명) 앉혔다는 점도 스타머 내각의 특징이다.

◆스타머 총리 첫 업무 ‘난민이송 폐기’=스타머 총리는 취임 하루 만인 지난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정부의 간판 정책이던 ‘르완다 난민이송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박현준 기자

‘서방과 대화, hizap 완화’ 이란 개혁과 대통령 당선... 미국 “기대 안해”

폐제시키안 대선 결선서 54% 득표
핵협의 복원 공약 ‘비주류’ 정치적
‘이란 국민의 개혁 열망 반영’ 분석
WP “신정체제 특성상 변화에 한계”

5일 실시된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결선 투표 개표 결과 온건 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70)이 최종 당선(득표율 54%) 되면서 이란의 앞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주류 정치인으로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대이란 경제 제재 완화, hizap 단속 완화 등을 공약한 페제시키안의 승리엔 개혁에 대한 이란 국민의 열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페제시키안의 당선으로 이란과 서방의 대화 가능성이 열리고, 경직된 이란 사회 분위기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슬람 신정일치 체제인 이란은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적

인 만큼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폐제시키안이 당선되자 지지자들은 거리로 나와 춤을 추고 자동차 경적을 울려댔다. 페제시키안은 6일 당선 연설에서 “나의 승리는 이란에 새로운 장을 열어 줄 것이다.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변화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대선 기간 이란의 경제난 해결을 위해 미국 등 서방과 대화하고,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파인 하산 로하니 정부(2013~2021년) 시절 외무장관을 지낸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는 “폐제시키안 대통령의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단합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자리프 전 장관은 이란 측 인사로 2015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 정부와의 핵합의를 이끌었다.

그러나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페제시키안의 당선에 대해 “미국

의 이익을 진전시킬 때 이란과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면서도 “우린 이번 선거가 이란의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에선 국방·안보·외교 등 국가 주요 정책의 최고결정권을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페제시키안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그를 향해 “(강경 보수파인) 전임 에브라힘 라이시의 길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페제시키안은 개혁파이지만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겐 충성을 표해 왔다. 워싱턴포스트는 페제시키안에 대해 “하메네이의 신정체제엔 도전하지 않을 인물”이라며 그의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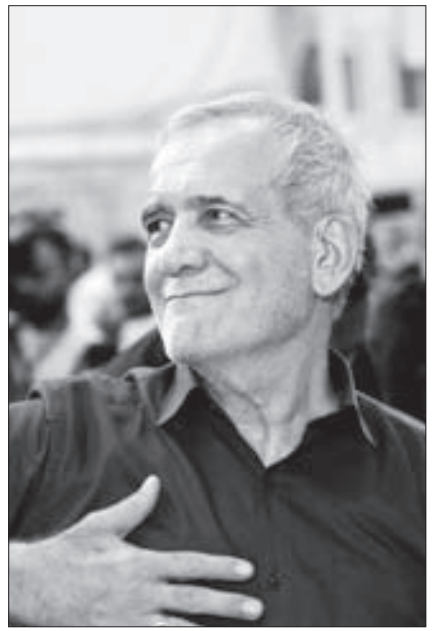
아울러 페제시키안의 핵협의 복원 공약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는 대통

령 재임 시절인 2018년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가했다.

그럼에도 이란 민심이 대선 결과로 확인됨으로써 내부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중동 전문가 사남 바킬은 CNN에 “폐제시키안은 그간 덜 억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심장외과의 출신으로 5선 의회 의원인 페제시키안은 1997년 개혁파 모하마드 하타미 정부에서 보건부 차관으로 발탁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장관을 지낸 대선 의원이나 유명인이 아닌 그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건 보수파 지도층을 향한 불만이 분출된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아제르바이잔·쿠르드계 부모에서 태어나 이란 사회의 비주류로 평가되는 그가 소수민족 표심을 얻었다는 분석도 있다. 1994년 교통사고로 산부인과 의사였



의대 학장 시절 빈곤지역 병원 건설사업에 주력했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당선인. 6일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묘소 참배 때도 정장 대신 평소 입던 남방 차림이었다. [AP=연합뉴스]

던 아내와 자녀 한 명을 잃은 그는 지금까지 재혼하지 않고 남은 세 자녀를 키웠다. **임선영 기자**

고이케, 도쿄도지사 3연임 성공... 여당이 웃었다

(자민당·공명당)

무소속... 자민·공명당 지원 받아
과거 조선학교 보조금 미지급 논란

사실상 여야 대결 구도로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71·사진)가 웃었다. 일본 NHK는 7일 치러진 선거 출구 조사 결과 고이케 현 도쿄도지사의 예상 득표율이

40%를 넘어 당선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6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여성 최초로 도쿄도지사에 취임했던 고이케 지사는 이번 당선이 확정되면 3선 지사 기록을 세우며 인구 1400만명, 일본 수도 도쿄도를 향후 4년간 더 이끌게 된다. 고이케 지사는 자민당



추천을 받아 출마하지 않았지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지원 선을 하면서 사실상 여당의 지원사격을 받았다.

TV 앵커 출신인 그는 국회의원 과 환경상·방위상 등을 역임한 스타 여성 정치인이다. 2016년 7월 도쿄도 지사 선거에 자민

당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자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저출산 대책, ‘고액 갑질’ 방지 조례 추진 등으로 호평을 얻었다. 하지만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을 추모하는 행사에 추모문을 보내지 않고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는 56명이란 역대 최다 후보가 출마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치러진 보궐선거에

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연패하자, 사실상 여야 대결 구도로 치러진 이번 선거가 ‘자민당 시합대’란 평을 받기도 했다.

한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지원을 받으며 고이케 지사와 맞대결을 펼쳐 관심을 끌었던 입헌민주당 출신인 렌호(蓮舫·전 참의원 의원·56)는 고이케 지사와 이시마루 신지(石丸伸二·41) 히로시마현 아키타카타(安芸高田)시 전 시장에 밀려 3위에 그쳤다. **도쿄=오누키 도모코·김현예 특파원**

김민지 변호사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만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 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 대외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잭슨빌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사회적 참여 활동 부족해도 빨리 늙는다

새롭게 밝혀진 노화 요소

장수를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시니어들은 다 안다. 정크푸드를 먹지 않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며 소파에 자주 눕지 않고 숙면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건강에 해로운 것이 대부분 장수를 막는다. 전국은퇴자협회는 최근 노화를 촉진하는 여러가지 요소를 공개했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분자 수준에서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 각광 받는 '후성유전학적 시계'는 나이에 따른 노화가 아닌 생물학적 내부 지표, 혈액 연령 및 기타 검사를 통해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보호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이로 인해 나이에 상관없이 노화 촉진 습관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게 됐다.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 및 질병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몇 가지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나이에 따른 생물학적 시계의 속도를 빨라지는 것을 알게 됐고 아울러 늦추는 방법도 알게 됐다.

◆악한 사회적 참여 활동

미국에서 외로움과 고립이 만연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왜 그토록 심각한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자주 인용되는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사회적 연결이 부족하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 활동이 아예 없거나 비만인 것보다 더 위험하다. 중국 성인 1만2000명을 대상으로 혈액 생체 지표를 사용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불행과 같은 다른 심리적 상태와 함께 흡연보다 노화를 더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긴밀한 유대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신체가 만성적인 피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스트레스는 신체와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더 일찍 사망하게 한다.

아울러 '생활 공간'이 작아질수록 수명은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활 공간은 자신이 방문하는 모든 지역, 모든 장소다. 어떤 사람에게든 삶의 공간이 넓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야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한다.

◆가꾸는 격렬한 운동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틀림없이 길고 건강한 삶의 열쇠다. 그러나 대부분의 습관과 마



고독하거나 외롭다는 것은 매일 담배를 15개피 피우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지 않다.

(빙닷컴 copilot생성)

**고독하면 담배 15개비 보다 위험
'생활 공간' 넓으면 오랫동안 건강
중년 이후 체중 감소 더 늘어 보여
출산하면 늙어지지만 석달후 회복**

찬가지로 극단적인 행동은 인체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운동도 예외는 아니다.

2023년 연구에서 45년 이상 추적해온 핀란드 쌍둥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 기간이 끝날 때 채취한 혈액 샘플에서 수집한 생물학적 노화 측정치와 참가자의 운동 습관 중 일부를 제공한 결과, 가장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참가자가 활동적이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연구에 따르면 앞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 모두 신장 기능과 관련된 단백질 수치가 높았으며, 이는 결국 심장병과 심장 돌연사의 위험을 높였다.

운동을 포함한 건강한 습관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타고난 유전적 요인이 운동량에 따른 사망 위험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 주당 최소 시간의 4배가 넘는 비율로 장

기간 중등도 또는 고강도 신체 활동(주당 10시간 이상 운동)은 조기 사망 위험 증가와 무관했고 사망 위험도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없었다. 어느 시점에서는 운동으로 인한 건강 이득이 감소했다.

만약 울트라마라톤 선수가 울트라마라톤을 마친 직후에 이러한 생체적 연령 테스트 중 하나를 실시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더 나이 들어 보일 것이다. 운동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실제로 인체가 꽤 큰 스트레스를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호 메커니즘에 의해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시기

비만은 제2형 당뇨병, 심장병 등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체중이거나 체중을 많이 감량하는 것이 항상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약한 체중을 늘리는 것이 노년엔 인체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2023년 논문에서 중년부터 이후 성인(40-84세)에 비만에서 정상으로 변한 사람들이 비만을 유지한 사람들보다 생물학적으로 더 늙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릴 때 체중을 감량한 사람들은 생물학적 나이가 늦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발견은 노년기의 체중 감소가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며 노쇠 및 기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콘크리트 정글에서의 생활

노화와 관련된 혈액 생체 지표를 조사한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녹지 근처에 살면 수명이 평균 2.5년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녹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저자들은 약 1000명의 도시 거주자로부터 20년 간의 데이터를 평가한 결과 공원 및 기타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후생적 노화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자연의 영향이나 자연의 결핍이 사람의 생물학적 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적어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연에 접근할 수 없는 매우 도시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확실히 생물학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과 잠재적인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챙김 및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처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는 아마도 도시 환경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

◆임신

임신은 시니어와 크게 관련이 없지만 젊은 시절 가임기를 겪은 여성 시니어들에게 관련이 있다. 2024년 4월 연구에 따르면, 임신한 필리핀의 20-22세 여성은 한 번도 임신하지 않은 여성보다 생물학적으로 더 나이들어 보였다. 여성이 임신 횟수가 많을수록 그녀의 내면도 나이가 들었다.

임신은 명백한 신체적 변화로 이어지지만, 분자 수준에서도 이러한 변화 중 일부를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예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이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산후 3개월이 지나면 적어도 부분적으로 역전되는 경향이 있다. 엄청난 회복이 있다.

장수를 중시한다면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거나 아이를 적게 낳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신한 사람과 초보 엄마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병희 기자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시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교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미국·나토·아시아 동맹군 진주만 집결... 한국, 지휘부 첫 입성

(CFMCC·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미 해군, 칼빈슨함 등 함정 16척 투입
대중국 견제용 최선에 핵잠도 참여

거대한 항공모함 갑판 위에 스텔스 전투기 등 항공기들이 가득 차 있다. 함모를 호위하는 이지스 구축함 등도 차례대로 도열했다.

6일(현지시간) 하와이 진주만 하카합동지구의 H부대는 거함으로 가득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상 최대 규모의 격년제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 훈련(RIMPAC·림팩)이 지난달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리고 있어서다.

미 해군은 이번 림팩에 니미즈급(10만t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CVN-70)을 필두로 모두 16척의 함정을 투입했다. 추구장 3배 크기(길이 333m, 폭 76.4m)의 칼빈슨함 갑판에 올라서니 미 해군이 함재기로 운용하는 F-35C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A-18E 수퍼호넷 전투기, E-2D 조기경보기 등 공중자산이 집결해 있었다. ‘떠다니는 기지’란 말이 실감났다.



미국 진주만 하카 기지에 항공모함 칼빈슨함(왼쪽 사진)과 해군 울곡이함(오른쪽), 충무공이순신함이 정박해 있다. 이유정 기자, 사진 해군

매튜 토머스 칼빈슨함 함장(대령)은 “칼빈슨함의 항공기 80여 대가 림팩에 참여해 동맹국·파트너들과 상호운용성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전술 기술과 절차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림팩엔 역대 가장 많은 29개국 이 참여한다. 한국·일본·호주·필리핀 등 미국의 인·태 지역 핵심 동맹은 물론 영국·프랑스·독일 등 나토(NATO·북

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도 대거 전력을 보냈다. 이런 다국적 함정 40여 척과 항공기 150여 대, 2만5000여 병력이 훈련에 참여한다.

프랑스는 처음으로 본토에서 브르타뉴 구축함(D655)을 파견했고, 독일 공군은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를 처음 투입했다. 나토군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우려한다. 마이클 워제 미 제1항모함단 단장은

“나토 회원국의 림팩 참여는 전 세계가 연결돼 있다는 방증이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도 이번 림팩은 10~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와 겹친다. 서방 진영의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는 기간 태평양에선 군사력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그림이 연출되는 셈이다.

림팩은 갈수록 대중 견제 성격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림팩엔 미 해군의

최신에 핵추진 잠수함인 버지니아급 1척(노스캐롤라이나함)과 로스앤젤레스급 1척(토피카함) 등도 참여하는데 이들은 대만 유사시 투입될 대표적인 전략자산들이다.

특히 올해는 유·무인 체계를 혼합한 다중 영역 훈련에 방점을 뒀다.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커티스 윌버함(8900t)은 지난달 말 림팩의 일환으로 무인기 6대를 해상에서 발사하고 회수하는 훈련을 했다.

한국 해군에선 이지스 구축함인 울곡이함(DDG), 차세대 주력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DDH-II), 손원일급 잠수함(1800t급) 이범석함(SS-081), P-3 초계기 등을 보냈다. 1990년 1800t급 수상함 두 척으로 림팩에 처음 정식 참가했던 한국 해군은 34년 만에 림팩의 지휘 구조에 올해 처음 입성했다. 문종화 림팩 전대장(대령)은 ‘림팩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CFMCC)’의 부사령관을 맡았다.

진주만=이유정 기자

“한국 배 타보자” 미군 4성장군 네 명, 천자봉함 찾은 까닭은

(4900t급 차기 상륙함)



2일 천자봉함에서 만난 문종화 대령과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사진 해군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등

다국적 해양훈련 ‘환태평양 훈련(RIMPAC·림팩)’은 전 세계 해군들이 한데 모여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자 각국의 해군력과 국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가 ‘함상 리셉션(함정 개방 행사)’이다. 진주만에 정박해 있는 차기 함들을 림팩 참

가국 군인들에게 개방하고, 교민들을 초청해 각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을 알리는 행사다.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의 4900t급 차기 상륙함 천자봉함에서 열린 한국 함상 리셉션에는 미군 대장 네 명이 연달아 방문했다고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사령관, 폴 러캐

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스티븐 켈러 미태평양함대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공군사령관 등이었다. 일본을 비롯한 타국 함정들엔 4성 장군이 한두 명씩만 방문했는데, 대장이 네 명이나 한국 함정을 찾았다.

입소문이 나면서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도 “한국 함정을 타보자”는 얘기가 돌았다는 게 해군의 설명이다. 통상

리셉션에는 250~350명가량이 방문하는데, 한국 리셉션에는 500여 명이 몰렸다. 해군 림팩 전대를 이끌고 있는 문종화 대령이 “림팩은 한국군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한다”면서 “2026년 연합해군구축군사령관 도전에 이어 2028년엔 림팩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하와이에 거주하는 생존 6·25 참전용사가 리셉션에 참석한 일도 화제가 됐다.

진주만=이유정 기자

‘빚 1039조’ 정부 급전... ‘한은 마통’ 92조 끌어썼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9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장 쓸 돈이 부족할 때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해 한은으로부터 돈을 끌어온다. 상환 기간이 짧고 수시로 빌리는 게 가능하다 보니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7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1~6월) 정부는 한은에서 91조 6000억원을 빌렸다. 이 중 71조 7000억원을 상환해 6월 말 기준 갚지 못한 잔액은 19조 9000억원이다. 차입금은 상반기 기준 관련 통계가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재정 지출이 늘어난

2020년 상반기(73조 3000억원)는 물론 역대 최대 세수 핑크가 발생한 지난해 상반기(87조 2000억원)보다 더 늘었다.

정부가 상반기 ‘한은 마통’ 이용을 늘린 건 올해도 이어진 세수 결손 탓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0조 2000억원)보다 9조 1000억 원 줄었다.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내는 법인세가 대폭 줄어든 영향이 크다.

세수는 부족한데 정부의 재정 지출은 상반기에 집중됐다. 정부는 약자 복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한 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수출은 반

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고금리로 인해 내수 경기가 부진하자 재정 투입을 앞당긴 것이다.

아무리 단기 대출이라고 해도 이자는 발생한다. 올해 상반기 한은 일시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정부가 한은 마통을 썼다가 갚은 이자 가운데 가장 많다. 정부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돈을 한은에서 수시로 빌리게 되면서 이 돈이 시중에 풀렸을 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 마통의 경우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으니 정부가 대출 형태로 돈을 빌리는 데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 하반기 세수로 상반기 한은

일시 차입금을 갚는 식의 ‘돌려막기’ 상황에서 하반기 세수마저 줄어들 경우 재정 지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마통 의존을 높이는 배경에는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 영향도 있다. 7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에는 국고채·외평채·주택채 등이 포함됐는데 이 중 국고채 이자비용이 23조 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늘어난 건 팬데믹 대응을 위해 국고채 발행이 늘고 최근 금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9년 611조 5000억원에서 2022년 937조 5000억원→지난해 998조원까지 늘었

다. 올해 4월 기준 발행 잔액은 1039조 2000억원이다.

정부 예산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3%) 이후 8년 만에 3%대를 넘었다. 지난해 총지출(610조 6907억원)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3.1%를 기록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는 한정돼 있는데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날 경우 경기변동 대응에 투입되는 재량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출성 평가” 논문에서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 소득의 약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계산했다.

정진호·이우림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페어팩스 타운홈	알렉산드리아 콘도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875,000	\$310,000	\$880,000	\$1,200,000
방3, 화3.5, 차고2. 2001년산 End Unit, Super Location, Walk-Out, 새지붕, 2층 새카펫, New Appliances	방1, 화1, 차고1, 2007년산 엘리베이터, Large Fitness, 세탁기&드라이어 In Unit, 24/7 Concierge SVC	방4, 화3, 차고2, Ranch 스타일, 1.12 Acre, All Brick, 새지붕&새 거터, 잘 가꾼 뒷마당 숲이 아름다운 집	방4, 화3.5, 차고2, 정원이 아름다운 코너집, 리모델링 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Lumiere -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김 여사 문자, 친윤의원이 주위에 보여줘” “나도 원문 못 봐”

〈해당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도 무응답) 논란이 7·23 전당대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누가 어떤 의도로 공개했는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그게 전부인지 등의 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4일 해당 메시지를 공개한 CBS 간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9일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한 후보에게 “몇 번이나 국민께 사과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일 것이다. 사과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

겠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1월 15~25일 김 여사는 사과 취지의 메시지를 다섯 차례 보냈지만 한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후보 측은 김 여사의 문자가 “사과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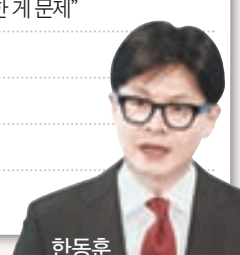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4·10 총선 석달 전 선거가 ‘김 여사 리스크’로 뜨거울 때였다. 1월 17일 김경을 비대위원은 프랑스혁명을 촉발한 ‘마리 앙투아네트’를 거론하며 명품백 사건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고, 이어 한 후보도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18일),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19일)라고 말했다. 문자 무시 사건을 뒤늦게 안

윤석열 대통령은 불쾌해 했다고 한다. “쌓여 온 한 후보에 대한 불신이 이 사태를 기점으로 폭발했다는 것”이 친윤계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1월 21일엔 당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유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배석한 3자회담에서 한 후보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윤-한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권에 회자되던 이 사건을 한 중편 채널이 1월 23일 처음 보도했다. “비슷한 시기 한 친윤계 의원이 해당 메시지 전문을 주변 몇몇 의원에게 보여주면서 읽씹 논란이 처음 퍼지기 시작했다”는 말도 있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의원은 “메시지를 친윤 의원에게 전

한동훈 후보, 김건희 여사 간 무슨 일 있었나

1월 10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필요”
1월 17일	김경을 비대위원 명품백 논란에 ‘마리 앙투아네트’ 빚대어 김 여사 사과 요구
1월 18일	한 “명품백 논란, 국민 걱정할 부분 있다”
1월 19일	김 여사 “대국민 사과 포함 어떤 처분도 받겠다” 문자 (출처 CBS)
1월 2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 만나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1월 22일	친윤 핵심 이철규 “교통사고 당했는데 피해자에게 책임 묻는 것”
1월 23일	윤-한 서천화재현장서 임시 갈등 봉합
1월 29일	윤-한 ‘2시간37분’ 오찬 회동
2월 7일	윤 명품백 논란에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
5월 9일	윤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
6월 24일	한 이철규와 40분 독대
7월 4일	CBS ‘김 여사 문자’ 공개



달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말하는 의원도 있다”고 전했다. 또 공개되지 않은 메시지 내용 중엔 “천번 만번이라도 사과하겠다”는 김 여사의 말도 있다고 한다. 해당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여준 장본인으로 지목된 의원은 “원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논란은 지난 4일 CBS의 한 논설위원이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메시지를 재구성해 공개하면서 재점화됐다.

한 후보와 가까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문자의 내용에 관해선 한 후보 측의 해명이 맞다. 이걸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정·윤지원 기자

수도권 시간당 30mm 폭우, 남부는 36도 폭염

수도권 호우특보, 내일까지 장맛비 남부 일부 폭염경보, 짙둥더위 계속



충청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도심에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출근길부터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8~9일 이틀간 12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비가 오지 않은 지역에서는 높은 습도 속에 끈적한 무더위가 나타나는 등 폭우와 폭염이 공존하는 시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체전선(장마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날(7일)까지 충청권에는 집중적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렸다. 반면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남부 지역에는 최고 36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이날 제주 북부의 대흘 관

측소는 35.7도까지 기온이 올랐고, 경북 포항과 경주도 한낮에 각각 33.2도, 33.1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남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

졌고, 경북 일부 지역에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폭염경보까지 발령됐다. 8~9일에는 저기압이 비구름을 몰고 연달아 중부 지방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거센 장맛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중부 지방에는 8일 하루 동안 30~80mm의 비가 예상되며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는 이날 아침부터 낮 사이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상청은 8일 오전을 기준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9일에도 서쪽에서 또 다른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비구름이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영준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8일과 9일의 강수량이 누적되는 중부 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비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8~9일에 내리는 장맛비 역시 주말과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에 강한 형태로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남쪽으로 폭은 좁고, 동서로 길이는 긴 비구름대가 만

들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높은 습도 때문에 짙둥더위를 겪게 된다. 남부 지역의 경우 체감온도가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남북으로 폭이 좁은 긴 정체전선 때문에 강수가 집중되는 구역과 강수가 오지 않는 인근 지역 간에 체감하는 비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폭염과 폭우가 공존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10일 이후에도 장마는 계속된다. 10일부터 12일까지는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 남부 지방에 비를 뿌리겠고, 중부에는 더위와 함께 소나기가 가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인 13일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올라오면서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천관필 기자

소생간 먹은 20대 복통·발열 ... ‘야토병’ 의심환자 발생

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야토병(野兔病)’ 의심 환자가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했다.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2006년 법정 감염병 지정 이후 첫 번째 사례다. 감염병 지정 전엔 1996년 12월 경북 포항에서 야생토끼 접촉 이후 감염 사례가 있었고 이후 현재까지 확진 사례는 없었다. 보건당국은 야토균 배양 검사를 통해 정확한 확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7일 질병관리청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시 한 병원에 입원했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한 병원 자체 야토균 배양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지난달 24일 집 근처 소곱창 식당에서 소생간을 먹고 사흘 뒤 복통과 발열 증상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9일 이 병원에 입원했다. 진단명은 결장(대장)염이었으나 혈액을 통한 야토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보건당국에 보고됐다. A씨는 발열 등 증상이 사라져 입원 나올 만인 지난 2일 퇴원했다.

야토병은 병원체인 야토균을 들토끼

나 다람쥐 같은 설치류 개고양이에서 흡혈한 진드기, 모기 등을 통해 사람에게 옮기는 감염병이다. 병원균을 가진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만지거나 날 것으로 섭취했을 경우 감염될 수 있는데, 분말(애어로졸) 형태로 폐에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60%에 달해 2006년 제4급 법정감염병 지정 4년 만인 2010년 제1급 법정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으로 지정됐다.

국내 확진 보고는 1996년 12월 경북 포항에서 야생 토끼를 요리하던 중 감

염된 사례가 유일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50만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미국에선 1950년대 전에 매년 1000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스웨덴에선 골프장 주변에서 모기 매개로 약 979명이 감염된 사례도 있었다. 사람 간 전파 사례가 보고된 적은 아직 없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폐렴이나 혈액 매개로 감염될 경우 30~60%의 치명률을 보이거나 진드기에 물려 피부로 감염된 경우 등 전체적인 치명률은 8% 수준”이라며 “분말로 야토균을 살포해 흡입하게

되면 생물테러무기로 쓰일 수 있어 1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야토병 의심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혈청 검사를 의뢰했다. 최종 확진 판정은 최소 5일이 소요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올라온 총 6건의 야토병 의심 보고는 모두 음성으로 결론 났었다”며 “만약 이번엔 양성 확진이 되면 역학 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 기자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 개런티 이자
- / 단기 (3년, 5년, 7년)
-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건물 소유하며 비즈니스 하세요! 도매업 / 쇼룸 / 리테일

VA Mosaic District 에 위치한 최상의 로케이션 \$1.35M



3,600 SF 창고 / 리테일 / Warehouse / Industrial Flex, Mosaic District 에 위치한 최상의 로케이션, 495에서 1마일, Drive-in, 전장 18 FT, I-5 Zoning *추천업종: 도매업, 창고, 쇼룸, 리테일 SBA융자가능

사평센터 | 참고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미국 3대 상업부동산 회사 Marcus & Millichap의 업무경험, 사평센터를 직접 투자하고 관리한 경험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들이 있습니다!

- 30,000+바이어 Data Base 보유
- YouTube, Offering Memorandum 제작
- Social Media 마케팅, 싸인설치
- 신문광고, Costar Premium 리스팅 광고
- Broker Licensed DC, MD, VA



미엘신 571.243.5797 **케빈신** 703.395.3123

FORTUNE Realty Advisors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밝고 밝고 건강하게 열린
헬스케어가 함께 합니다.**”



메디케이드
신청 상담



롱 텀 케어
서비스



어시스트 리빙
[양로 호텔]

2024년 하반기 오픈 예정

양로원에 들어가실 분들과 나오실 분들께
그룹 홈이나 양로 호텔로 안내해 드립니다.

시니어 부부는 그룹 홈으로 모십니다!



VIRGINIA OPEN
HEALTH CARE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대표 김종훈

문의 및
안내

Doug Ko, PMP, Director of Healthcar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s

Mobile: (703) 268-0107

Office: (703) 280-0910



General Inquiries: info@vaoh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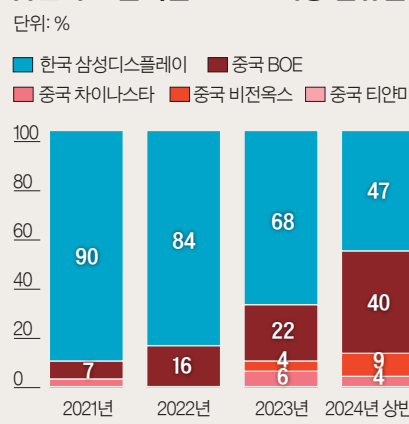
스마트워치 액정도 중국 64%... 점유율 이어 기술 1위 노린다

(O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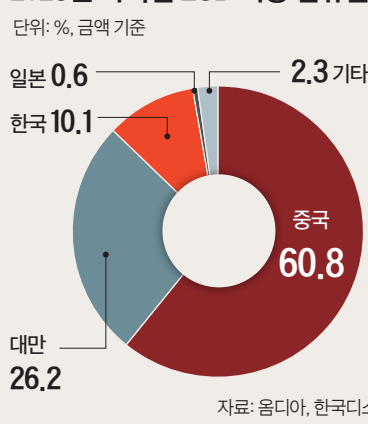


지난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새너제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학회 SID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BOE 부스에 관람객이 몰려 있다. [사진 BOE SNS]

급변하는 폴더블 OLED 시장 점유율



2023년 국적별 LCD 시장 점유율



한국 제천 중국 디스플레이
110인치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첫선
한국 장악한 대형 시장에도 진입
“디스플레이, 경제안보 측면서 중요 정부, OLED 경쟁력 키우게 지원될”

위를 내주고 나서부터 쫓기는 신세대.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장악한 중국은 이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같은 최첨단 기술에서도 한국을 바짝 따라붙고 있다.

플레이의 점유율은 2021년 90%였지만, 올 상반기엔 47%로 크게 줄었다. BOE·차이나스타(CSOT) 등 중국 기업들이 53%를 차지했다. 올 1분기에는 화웨이·오포 등 중국산 폴더블폰에 대거 납품한 BOE의 점유율이 54.3%까지 치솟아 삼성디스플레이(28.9%)와 순위가 뒤집혔다. 스마트 워치용 소형 OLED 시장에서도 올 상반기 중국 제조사 점유율이 총 64%(추정치)로, LG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 점유율 합산(25%)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이 장악한 대형 OLED 시장에도 중국 기업들이 발을 뻗고 있다. 한국이 점유율 100%였던 대형 OLED 시장에도 중국이 처음으로 진입해 4%를 차지했다.

한국이 그랬다. 향후 이 주도권이 중국 기업들에 넘어갈 경우, 중국이 전 세계 디스플레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무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남상욱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부연구원은 지난달 열린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포럼’에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했다.

손으로 조작하는 투명 디스플레이, 가상현실(VR)에 접속하는 헤드셋... 미래를 그린 공상과학 영화에는 디스플레이가 단골로 등장한다. 스마트폰·TV·자동차·VR 기기 등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는 전자 시장의 최전방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자, 관련 소재·제조 설비 등 후방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장치 산업이다. 한국은 LG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17년간 세계 1위를 지키며 이 시장을 주도해 왔지만, 2021년 중국 기업들에 1

7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새너제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학회 ‘SID’에선 차이나테크의 향연이 펼쳐졌다. 중국 기업 46곳이 부스를 차리고 신기술을 뽐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 BOE는 최고 밝기를 자랑하는 마이크로LED, 세계 최초 110인치 16K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등 신제품 50여 개를 내놨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행사장이 실리콘밸리인지 베이징 한복판이 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디스플레이 산업은 전통적으로 과점 시장이었다. 한때 일본이 주도했고, 지난 20년간

중국을 전 세계 LCD의 63%(2023년)를 생산하고 있는데, 2027년이면 그 비율이 78%에 이를 전망이다. LCD보다 화질이 뛰어나며 고가인 OLED에서도 중국의 생산 비중은 2027년 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진 한국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는 “LCD에 이어 OLED까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형성될 경우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의 OLED 전환을 촉구했다. 박동건 서강대 석좌교수(전 삼성디스플레이 사장)는 “삼성·LG는 LCD 사업을 중단했지만, 중소기업 중엔 LCD 사업을 유지하면서 중국 산업을 뒷받침해 주는 곳들이 많다”며 “정부가 이들의 사업 전환을 도와 OLED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안기종 대표 “환자를 정부 압박도구로... 의료계에 화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치료 불이익 받을라 항의 못하고 중등증 환자들 너무 오래 참았다 400명 집회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
“(경증과 중증 사이인) 중등증 환자들이 불안을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의료계가 환자 불안을 도구로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에 환자들이 화가 난 상

황입니다.”
지난 4일 대규모 환자단체 집회를 주최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사진) 대표가 밝힌 집회 성사 배경이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이 집회에는 한국유

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주최 측 추산 400여명이 참석했다. 수천 명이 곤장 모이는 의사단체 집회와 비교하면 적은 인원이지만, 환자단체 역사로 보면 ‘이례적인’ 규모였다. 안 대표는 2001년 아내

가 백혈병을 진단받은 것을 계기로 환자단체 활동을 시작해 20년 넘게 이어 오고 있다. 자신도 갑상샘암 수술을 받았다. 그런 안 대표에게도 이날 집회는 감회가 남달랐다. 그는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환자들은 흑사라도 치료 받는 데 불이익이 생길까 싶어 의사나 정부를 향해 항의하는 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그동안은 집회를 해도 50명 이상 모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400여명이 모였다. 그만큼 의료공백 사태가 환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특히 중등증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4일 집회에서도 “중증 환자와 그 아래 중등증 환자의 경계를 나누는 건 ‘칼로 물 베기’”라며 대형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임성근에게 면죄부 줬다” 채상병 대대장측, 경북경찰청장 고발

(전 해병대 1사단장)
경찰 수심위 ‘임 무혐의’ 결정에 “수심위 개최는 직권남용” 반발
공수처·검찰 ‘투트랙 수사’ 될 듯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복잡해지고 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하자, 채 상

병 소속 대대의 대대장 측이 반발하면서다. 앞서 경북청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8일)를 앞두고 수심위를 개최했다. 수심위는 지난 5일

채 상병 사망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9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의견을, 여단장 등 나머지 6명은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의

견을 정했다. 이에 대해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인 이 용민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심위는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수심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 /

DC 창고 SOLD \$ 2.5M DC, NoMa Metro 상권	DC 사평센터 SOLD \$ 2.4M DC, Capital Hill 지역	DC 단독건물 SOLD \$ 1.5M Benning Rd., 개발지역	DC Mixed-Use SOLD \$ 1.6M Capital Hill 지역	DC 사평센터 SOLD \$ 4.5M Popeyes, 연인컴 \$32만	DC NW 아파트 SOLD \$ 1.5M Metro 상권, 5 유닛
DC Georgetown SOLD \$ 930K Retail / Residential	DC H Street LEASED 단독건물 Union Station	DC Warehouse SOLD \$ 6.8M 67,000sf, Industrial	DC Warehouse SOLD \$ 5.8M 56,000sf, 창고 6에이커	DC Warehouse SOLD \$ 3.6M 냉장 / 냉동고, 창고	for SALE \$ 1.8M DC 3 유닛 주상복합 NW Metro 상권

DC 건물 리스팅 하실 건물주 분들!

DC 건물 테넌트와 TOPA 거래 전문부동산 개발업자와의 연계로 최상의 조건으로 팔아드립니다!

미셸신 케빈신

703.395.3123

FORTUNE Realty Advisors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미국이 막아도 첨단기술 다 키웠다... 생성AI 특허 1위도 중국

(지난 10년간)

2024 네이처 인덱스 교육기관 국가별 순위

순위	국가	2022년 지수	2023년 지수	변동률
1위	중국	20221.23	23171.84	13.6%↑
2위	미국	21659.11	20291.79	7.1%↓
3위	독일	4595.78	4318.68	6.8%↓
4위	영국	3996.23	3701.98	8.2%↓
5위	일본	2981.73	2956.75	1.7%↓
6위	프랑스	2335.57	2243.92	4.8%↓
7위	캐나다	1817.12	1702.32	7.1%↓
8위	한국	1644.45	1631.02	1.7%↓
9위	인도	1293.46	1494.27	14.5%↑
10위	스위스	1429.16	1393.22	3.4%↓

2024 네이처 인덱스 대학별 순위

순위	이름	국가
1위	하버드대학교	미국
2위	중국과학원대학교(UCAS)	중국 베이징
3위	중국과학기술대학교(USTC)	중국 안후이성
4위	베이징대학교(PKU)	중국 베이징
5위	난징대학교(NJU)	중국 난징
6위	저장대학교(ZJU)	중국 저장성
7위	칭화대학교	중국 베이징
8위	중산대학교(SYSU)	중국 광둥성
9위	상하이교통대학교(SJTU)	중국 상하이
10위	MIT	미국

※전체 대학 500곳 중 중국 141곳, 상위 100곳 중 중국 38곳 자료: 네이처



중년의 동양인 남성이 얼굴 근육을 실용거리며 젓가락으로 면을 먹고 있다. 5초짜리 이 영상은 중국 스포츠 생성 인공지능(AI) '클링'이 만들어낸 가공물이다. [사진 클링]

AI 분야서도 미국과 라이벌

중국 AI '국수 먹는 남성' 영상 생성 사람같은 모습에 실리콘밸리 발각한·중반도체 패키징 격차도 줄어 WSJ "중국, 제재 우회해 칩 밀반입"

중년의 아시아 남성이 국수를 집어 먹는다. 젓가락을 쥔 손가락과 면을 씹으며 실용실용 움직이는 얼굴 근육이 실제 사람처럼 생생하다. 5초짜리 이 영상은 '틱톡 라이벌'로 꼽히는 중국 스포츠 비디오 플랫폼 기업 콰이쇼우의 생성 인공지능(AI) '클링'이 지난달 8일 공개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미국 실리콘밸리는 발각 뒤집어졌다. 틱톡으로 미국 소셜미디어(SNS) 시장을 이미 위

협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엔 생성 AI 기술의 최고봉인 동영상 분야에서 위협적인 기술을 들고나온 것이다. 클링은 원하는 장면을 제시어(프롬프트)로 딱 한 번만 입력해도 초당 30프레임의 고화질 동영상을 최대 2분 분량으로 만들어준다. 최대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미국 오픈AI의 '소라'를 뛰어넘는 성능이다.

오픈AI가 지난 2월 공개한 소라의 정식 출시일을 계속 미루고 있는 가운데, 클링은 중국에서 공개 테스트에 돌입했다. 오픈AI·구글 엔지니어들도 해당 테스트에 참여해 실제 성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링 이외에도 중국 칭화대 연구진이 제작한 비두 등 중국형 AI 모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AI 모

델 라이벌은 미국"이라면서 "한국과 비교하면 중국이 이미 한참 앞서 있다"고 말했다. 유엔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생성 AI와 관련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했다. 미국·한국·일본·인도의 특허 출원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

한국이 아직 앞서 있는 첨단 반도체 공정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패키징(조립) 등 후공정 분야에서 추격이 거세다. 최근 패키징이 첨단 반도체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관련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중 패키징 기술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 대만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통푸 마이크로·JCET 같은 중국의

칩 패키징 및 테스트 기업들은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와 함께 첨단 패키징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웨이퍼(반도체 원판) 위에 칩을 붙이는 기술에 이미 진입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서도 바짝 따라붙었다. SMIC는 올해 자체 개발한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이를 통해 5나노미터(1nm=10억분의 1m) 공정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3나노까지도 가능하다. 당장 양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국의 제재에도 점차 핵심 공정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AI 칩 시장의 핵심 부품인 HBM(고대역폭메모리)을 자체 개발하려는 시도도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컨소시엄은 2026년까지 2세

대 제품인 HBM2 개발·생산을 목표로 가동에 들어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비교해 기술 수준은 10년 이상 뒤쳐져 있지만 'AI 칩 제조 독점'을 위한 포석을 놓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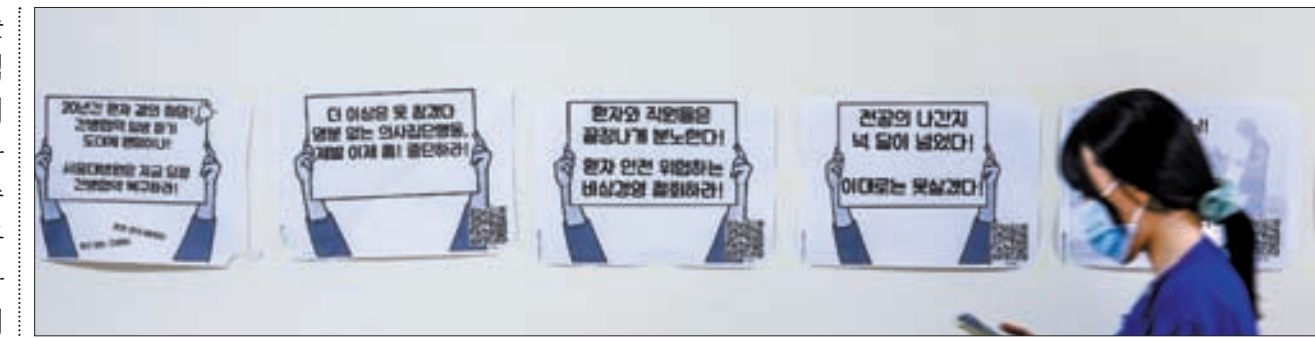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각종 꼼수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일부 해외 유학생 가방을 통해 엔비디아 칩이 중국으로 밀반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탑재된 AI 칩 없이는 AI 산업을 키우기 어렵다. AI 서버 가동에 필수적인 HBM도 마찬가지다. 올해 전 세계에서 생산된 HBM의 7%는 중국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미국 정부는 HBM에 대한 대중 추가 규제 검토에 돌입했다.

이희권 기자

“계속 검사하면서 추적 관찰해야 하는 환자들의 검사·수술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런 중증증 환자들로서는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안 대표에게도 의료공백 사태는 풀기 어려운 ‘난제’로 꼽힌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등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다. 그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의료 체계 변화를 위해, 정부·의료계뿐 아니라 국회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들은 이번 집회에서 의료인 집단행동 시 생명과 직결된 필수요료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집단행동 재발방지법’을 3대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안 대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러면 의료계만 손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남수현 기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애타는 호소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수련병원엔 연락이 닿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복귀와 사직 중 의사결정을 내려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8일) 미북귀 전공의의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시스]

“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변호사는 또 지난 6일 임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8일 일단락되지만, 김 변호사가 임 전 사단장을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검찰에서 진

행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행 공수처법상 업무상과실치사사 공수처의 수사 가능 범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는 기존의 공수처·경찰 ‘투트랙 수사’에서 공수처·검찰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 노설’로 대표되는 수사 외압 의혹(직권

남용 등 혐의)을 수사하고 있다.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진행되는 것이다.

경찰이 수습위를 거쳐 8일 발표하는 결론은 향후 공수처와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게 경찰과 수

심위의 판단이라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국방부가 해병대수사단 등을 압박했다는 ‘수사외압 의혹’도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애초에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련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해병대수사단의 판단이 무리

한 혐의 적용이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투트랙의 수사가 결국 특검으로 귀결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야당은 공수처 수사가 당시 뒷선으로 향하지 못한 점을 의심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팀이 출범하면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야 한다. 김정민·석경민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상담
전문

“ 세무 보고, 절세 전략, 세무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개인 세무 보고

- 50개 주 개인 세무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무 당감 신청

사업체 세무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무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온라인 예약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www.Selfotostudios.com

우리말 바꾸기

사이시옷 적기 규정의 어려움

“선배, ‘재룻값’ ‘원자재값’이라고 ‘사이시옷’을 붙여야 해? 너무 이상해 보여. 이거 규정을 따라야 할까?” “‘재료값’ ‘원자재값’이라 적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해. 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형태가 일그러지다 보니 거부감이 많이 들어.” “사이시옷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면 ‘돌렛길’도 ‘돌렛길’로 적어야 하잖아. ‘돌렛길’을 누가 받아들일겠어.”

한글맞춤법 30항은 ‘사이시옷’이 붙을 때 ‘ㅅ’을 받쳐 적도록 하고 있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나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낫가’ [내꺼처럼 낫발]의 ‘낫’ 소리로 된 낫발, ‘아랫나’ [아랫나]나 ‘낫물’ [넙넙처럼 ‘ㄴ’ 소리가 낫나거나 ‘나’로 읽히거나 ‘ㄴ’ 소리가 낫 때 ‘ㅅ’을 적으라고 한다. 한자어 단어는 예외(꽃간·셋방·숫자·찾잔·뿔·뿔·뿔)를 빼곤 안 적는다. 이 규정 때문에 끝없이 ‘ㅅ’을 받쳐 적는다. ‘최댓값, 채솟값, 등골집, 막냇손자...’ 그런데 ‘갯수’나 ‘마국간’은 한자어만 돼 있어 ‘개수’ ‘마구간’으로 적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한글맞춤법에서 사이시옷 규정을 빼버리는 거다. 그렇다고 ‘낫가’나 ‘아랫나’ 등에서도 사이시옷을 뺄 건 아니다. 사이시옷이 굳어진 단어들은 그대로 두면 된다. 사이시옷 표기여부는 국어사전에서 확인하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미-일 안보 협력 확대에 대응해야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을 위해 일본은 국방예산을 2027년까지 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하고 육·해·공 자위대 전력통합 운용을 위한 합동작전사(JOC: Joint Operation Command) 창설을 통해 지휘 통제 체계 진화, 적 기지 원거리 공격능력 보유를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미·일 양국은 국방·우주·경제안보 등의 새로운 협력분야 및 수준 논의를 통해 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일본의 안보 수준과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다. 미·일간 논의되고 확정된 국방·안보협력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미·일동맹 지휘통제체계 개선을 위한 작전역량 통합 목적의 개별 지휘통제 프레임워크 개선, 평시 및 위기시 상호운용성과 기획능력 증진, 정보감시정찰 협력과 양국간 정보공유역량 향상 추진.

둘째, 일본의 AUKUS(미·영·호주 안보협의체) 체계 Pillar-II(AI, 양자컴퓨팅, 극초음속 기술, 사이버안보, 수중전 등 8개 첨단기술 분야) 공동개발 참여 검토.

셋째, 미·일·호주 공동 대공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과 미사일정보 공유협력 협조, 역내 도발·확전에 대비 한 미일의 억제적전 시행계획 등 역내 안보 네트워크화 추진.

넷째, 미·일 미사일 공동개발·생산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인 DICAS 출범, AI 및 선진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전투기

조종사 훈련·준비태세 향상 협력. 다섯째, 주일미군 소속 함정 / 항공기의 일본 방산기업 지원에 의한 정비·유지 및 보수 운용 및 검토.

여섯째, 일본의 원거리 공격능력 보유와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지원을 위한 미국의 지상발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기술·운용능력 지원 및 극초음속 미사일 타격용 활공단계 요격 미사일개발협력 추진.

일곱째, 미·일·호주 정 감시정찰 작전 협력, 한·미·일 연례 다지역 연합연습 지속 시행, 미·일·영 3국 정례적 공동연습 시행(2025년 이후) 등 인태 지역의 대 중국 / 대북한 견제 성격의 3개국 안보협력체제 강화.

여덟째, 정보통신기술 회복탄력성 강화, 중요 인프라 보호, 인터넷상 사이버 안보 라벨링 관련 상호 인지능력 확보 등 정보 및 사이버 안보 협력 심화 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기존에 미국의 보호받는 수준에서 이제는 동등한 역할을 자임하는 미·일동맹 일체화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명확한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은 국익중심의 실사구시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러-우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분쟁 등 2개 전쟁으로 표류하고 있던 미국의 외교정책 중심축이 인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합동 작전사 창설, 해사대 정보전기간부대와 항자대 우주영역전문부대 창설, 미해군 태평양함대 예하 미·일 합동기동부대 창설 등 일련의 연합/합동부대 창설 움직임과 대만 유사사태를 대비한 남서태평양 지역의 전력증강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일 안보협력 확대에 시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독자마당

라이스 전 장관의 축사

지난 6월15일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스탠퍼드 골프 클럽에서 열린 손자의 ROTC 임관식에서 참석했다. 이날 임관식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라이스 전 장관의 축사는 참으로 감명 깊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세계 2차 대전 직후인 1945년 무렵만 해도 미국은 전 세계 경제력의 65%를 차지하는 초강대국이었다고 했다.

경제력 면에서 미국과 비교되는 나라가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힘을 활용해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도 앞장섰다고 라이스 전 장관은 강조했다.

심지어 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들이 독일과 일본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 전후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라이스 전 장관은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하다고 했다.

그런 시대에 살던 미국인들은 소비가 미덕이라며 경제적 호황과 인생을 즐겼다.

사람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어느 국가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행복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다. 20세기 초 한국에서 태어난 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

특히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때는 많은 고생을 했다. 물론 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한반도에 살던 모든 사람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나도 수출 증가에 일익을 담당하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체험했다.

이런 경제적 도약을 토대로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었고, 2002년에는 월드컵을 유치해 4강 진출이라는 영광을 누렸다. 이후 미국에 이민을 와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으니 이만하면 나는 행운아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시대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한 삶이다.

김영훈 자유기고가·한국 ROTC 1기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투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e, MD 21075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크리스 정
재산/상속/트러스트 변호사

Q 로맨스 스캠 당하지 않도록 상속 플랜 대비하기

▶문= 로버트 오브라이언 사건 (Robert O'Brien Case)을 아시나요?

▶답=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로 한 여성이 그에게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여성은 사업 문제와 의료비 문제를 핑계로 돈을 요구했고, 로버트는 자신의 은퇴 자금과 집까지 담보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나중에야 그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맨스 스캠에 당하지 않도록 상속 플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

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한 대비 방법들입니다.

1)정기적인 검토와 업데이트. 김 씨는 5년마다 상속 플랜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유산 계획 전문 변호사와 정기적으로 만나 자신의 재정 상황과 상속 계획을 검토하며, 불필요하거나 의심스러운 변경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 의해 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트러스트 설정. 박 씨는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했습니다. 트러스트를 통해 자

산을 관리하고, 자신이 신뢰하는 자녀 두 명을 공동 수탁자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 씨의 트러스트 자산은 트러스트 계약에 따라 관리되므로, 외부의 압력이나 사기로 인해 자산이 쉽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3)법정대리인 지정 시 견제와 균형 도입. 최 씨는 자신의 법정대리인을 지정할 때, 변호사와 재정 상담가 두 명을 공동 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재정 거래는 두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사기꾼이 법적 대리권을 남용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 씨는 자신의 담당 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재정 보고

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4)제3자 개입. 모든 변경 사항은 두 전문가가 검토하고 승인을 해야만 유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 씨는 자신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고, 외부의 압력이나 조작에 의해 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가족과의 열린 대화. 가족들은 정 씨의 상속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정 씨가 갑작스러운 재정적 요구나 변화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 씨는 가족의 지지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기꾼이 접근할 경우 가족들이 경고 신호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양
웰스피고 한인용자담당

Q 집 용자 받은 후 해야 할 일들

▶문= 용자 과정을 다 마치고 드디어 구입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주의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집주인으로서 해야 할 잔잔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꼭 알게 됩니다. 당장 이사를 해야 하고 각종 구좌와 카드의 주소도 변경해야 하고 각종 유틸리티의 이름도 바꾸어야 합니다.

집 구입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준 부동산 및 용자 에이전트, 에스프로 오피스, 집보험 에이전트, HOA의 연락처

와 담당자를 정확히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부동산 거래 및 용자 관련 서류들은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ddendum을 포함한 Purchase Agreement, 각종 Disclosures, Inspection report 및 Repair request, Appraisal report, Home Warranty 및 집 보험, HOA 관련 서류를 들 수 있습니다. 용자 관련 서류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을 보관 할 것을 권하지만, 특히 Loan Note, First payment coupon, Final settlement statement 등은 반

드시 챙겨서 보관할 것을 권합니다.

물론 나중에 필요하면 도와준 분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고 번거롭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반드시 사인이 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중 First payment coupon은 나의 용자 첫 번째 페이먼트가 언제이고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Settlement statement는 반드시 Final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Final Settlement statement는 용자 서류 사

인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에스프로가 끝난 후에 에스프로 사무실로부터 우편으로 (혹은 이메일로) 받게 되므로 신경 써서 챙겨놓아야 합니다. 이 Final settlement statement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보고 때 회계사무실에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프로가 끝난 후 수많은 각종 Scam Mail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서류인지 정확히 모를 때는 반드시 부동산이나 용자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여 손해를 보거나 고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박유진
변호사

Q 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상속세

▶문= 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상속세는 무엇이 있나요?

▶답= 한국의 높은 상속세를 피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은 한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여/상속과 관련된 미국법에 대해 잘 모르면 오히려 큰 코를 다치기 쉽다.

한국법에 따르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이거나 한국에 소재

한 재산이라면 한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증여자(증여를 하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 정부에 전세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 정부에도 과

세 대상이 되고, 미국 정부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전세계 증여재산에 대해 미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인지 따라 미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거주자로서 혜택도 누리게 된다.

미국법에 따르면 1인당 적용되는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이자 상속세 면제액이 2024년 기준 \$13.61 백만 이하므로 납세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증여/상속 재산이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제 납세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미국 정부에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법은 시민권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거주자 여부에만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자라 해도 한국 거주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한국 정부에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2 Car Garage,
End Unit, Update Kitchen,
새 페인트, 밝고 환한집

\$549,900



독점 Manassas Park 싱글홈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2 Car Garage,
앞뜰과 뒷뜰 넓은 데크!

\$690,000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좋은 위치의 밝고 깨끗한 환한 집, End Unit,
새로 단장한 마루, 부엌, 화장실,
Granit top, All new appliance, 백야드 펜스.

\$439,900



독점 단독주택 Alexandria

리모델링한 부엌 (새 주방용기, Granite counter-tops),
리모델링한 화장실, 새 나무 마루,
New Paint, 방4, 화장실2, As-Is

\$58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가든교회 창립 30주년 & 워싱턴북한선교회 8주년 기념

2024 통일선교사 세계대회 in Washington D.C

MZ & Next Generation 통일비전나눔

■ 일시: 7월 12일(금) ~ 7월 14일(주일)

■ 장소: 가든교회 (담임 한태일 목사) 8665 Old Annapolis Rd, Columbia, MD 21045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비전나눔 세미나

• 환영사: 한태일 목사(가든교회 담임)
• 특별찬양: 한동대 MK-GTR

• 환영만찬: 2024년 7월 11일(목) 6:00 PM • 세미나(All Day): 7월 12일(금) ~ 7월 13일(토)

30th(가든교회) / 8th(MiNKWa, Inc) 기념예배

• 설교 강동완 박사
• 특별찬양: 가든교회 찬양대

• 일시: 2024년 7월 12일(금) 7:30 PM~ 9:00 PM

다음세대 통일비전 선교부흥회

• 설교: 박동훈 목사(MD 빌립보교회 담임)
• 특별찬양: Mongolian Church (담임 황필남 선교사)

• 일시: 2024년 7월 13일(토) 7:30 PM~9:00 PM

통일선교연합기도의 날 및 통일선교사 위촉예배

• 일시: 2024년 7월 14일(주일) 7:00 PM~9:00 PM • 설교: 강재식 목사 (한국기독교북한선교회 이사장, 광천교회 담임)
• 통일선교사(피위촉자): 최영일, 홍진수, Yunnio Koehler • 특별찬양: 메릴랜드기독교합창단

지역 목회자 세미나

• 강사: 강재식 목사, 박종수 박사
• 특별찬양: 엠엘 크로마하프

• 일시: 2024년 7월 15일(월) 9:30 AM~ 12:00 PM

• 장소: 워싱턴신학대학 (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 이사장 문선희 선교사, 총장 이억십 목사) 11240 Waples Mill Rd., Fairfax, VA

축사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 회장 박엘리사 목사, (사)기독교통일화해회장 최현범 목사, 메릴랜드목사회회장 공 잔 목사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김영호,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중경회장단회장 지선묵 목사

통일선교 내지사역	 강재식 목사 (사)기독교북한선교회 이사장 광천교회 담임 ▶ 집회 설교(7/14) "예수 잘 믿읍시다"	 임한수 목사 (MJC 대표, 평안도 은빛교회 권로목사, 북한이류 949일)	 정인홍 목사 (남아침교회)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영성"	 박동훈 목사 (빌립보교회, MD) ▶ 집회 설교(7/13)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한 성도"	
북한이탈 주민상담 치유사역	 신효숙 박사 (북한대학교대학원) 발북민 정착 실태와 가치질등	 오은경 박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전문가) 남북 MZ세대의 특성과 통일인식	 박진욱 박사 (VACU 부총장 한사랑교회 담임) 북한선교 지도자 훈련	 이상욱 박사 (살전신학대학원 유아교육학) "북한 어린이를 위한 유아교육적 접근"	
특수분야 통일선교(단체)	 심양섭 목사 탐북민 대안학교 운영과 비전	 허남일 목사 (북한이탈주민, 그날 교회)	 Mrs. Heidi Linton (Christian Friends of Korea) History, of CFK	 심치형 선교사 (GIVE 선교사, 이공지와 지(사)대표 역임) "한 통일 전두라인의 통일 단상"	
통일학자	 강동완 박사 (중여대학교 교수, 통일통사 부총장) 그들만의 평양	 이수봉 박사 (미나리 여전 통일연구소) 성경이 말하는 통일	 박종수 박사 (국회사무처 유라시아21 부이사장) UNGTO와 통일선교	 정천광 박사 프러담 예언지 대학 선교학교수) 선라실에서 출발하는 북한선교	 마민호 박사 (한양대 교수, 한동대 글로벌 사명담당) 크리스천의 역사인식과 평안도 통일
섬기는 사람들 (워싱턴 북한선교회)	 고문 신덕수 목사 (이사장)	 대회장 김영호 장로 (대표회장)	 한영위위원장 한태일 목사 (가든교회)	 홍보 공영호 장로 (부이사장)	 기획총괄 노규호 목사 (사무총장)
	 교육 배현수 목사 (RUHAMA 회장)	 대외협력 이범 목사	 의전 안상도 목사 (RUHAMA총무)	 행정/사무 최영일 집사 (RUHAMA서기)	 재무/회계 김봉묘 목사

■ 세미나 등록하신분에게는 디아스포라통일선교아카데미(RUHAMA) 3 Credit 이수특전을 드립니다.

RUHAMA는 2년 과정(6학기)을 수료한 자를 심의하여 본회 통일선교사로 위촉합니다.

■ 선교역사유적지 Vision Trip(7월 15일(월)~19일(금), 4박 5일)은 초청자(Speaker 및 Special Guest)에 한함

주최: 가든교회(Garden Presbyterian Church)/ 워싱턴북한선교회(MiNKWa, Inc)

■ 후원: (사)기독교북한선교회/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메릴랜드한인교회협의회/ 워싱턴지역한인교회역자회 / 메릴랜드한인목사회/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중경회장단/ 메릴랜드기독교지도자협의회/ KCC-UTD(그날까지선교연합)/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워싱턴/ 통일광장기도회워싱턴D.C/ 워싱턴열방연합기도회/ 워싱턴신학대학(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 / 세션월드시니어선교회/ 워싱턴기도연합 / 세계대통령과 지도자들을위한기도회/ (사)기독교통일화해회/ 버지니아크리스찬대학/ 헤사픽신학대학원/ 한동대학교MK-GTR/ 워싱턴세션선교학교

■ 협찬: Global Market/ Top Travel/ Pop's Auto/ Media Press/ The Korea Times D.C./ manna 24 News

■ 문의 703)203-5851 (사무총장 노규호 목사)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다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JoongAng Ilbo

Monday, July 8, 2024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
임종법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강달러·수퍼엔저에 새벽 2시까지 실시간 환테크 ... ETF·RP도 방법

(환율 재테크)

40대 중반의 직장인 최모씨는 올해 들어 꾸준히 일본 엔화를 사 모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엔저(엔화 가치 하락)가 이어지더니 지난해부터는 더 내려 이른바 '수퍼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퍼엔저가 끝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에 환테크(환율 재테크)에 나선 것이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만큼 엔화를 사고 있다"며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엔화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달러당 엔화값은 장중 한때 161.90 엔까지 떨어졌다. 1986년 12월 이후 37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날 원·엔 재정환율도 850원대로 미끄러졌다.

지정학적 변수 등 염두 신
중 투자해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다가오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져 자 달러나 엔 등 외화를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환테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때마침 외환당국이 외환

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이던 외환거래 시장을 새벽 2시까지 연장했다. 이 덕에 환테크 투자자들은 새벽 2시까지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됐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야간에도 해외 시장지표에 따라 실시간 환율로 환전할 수 있어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테크족이 많이 찾는 외화는 단연 안전성이 높은 달러와 엔화다. 요즘 투자자들은 특히 엔화로 물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엔화예금 잔액은 지난해 27일 기준 1조2928억 엔으로, 지난해 6월 말(9373억 엔) 대비 37.9% 증가했다. 엔화예금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5978억 엔까지 줄었



다가 5월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엔화값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면서 엔화 가치 상승을 점치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달러와 인기도 여전히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외화예금 중 미 달러 비중이 81.2%에 이른다. 최근 중동 불안 등으로 단기간에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투자자도 적지 않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하고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도 많다. 핀테크 업체인 트레블렛 김명우 대표는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원화 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기 위한 달러 투자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앙은행들의 피벗과 전쟁 같은 지정학적 변수 등으로 환테크의 난도가 높아진 만큼 환율의 방향을 읽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달러의 경우 적어도 3분기까지는 강(強)달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실망설레가 있지만 9월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며 "3분기를 변곡점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반대로 달러 가치는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유는... >> 2면 '환테크족'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n 전직 검사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FAX 301-770-4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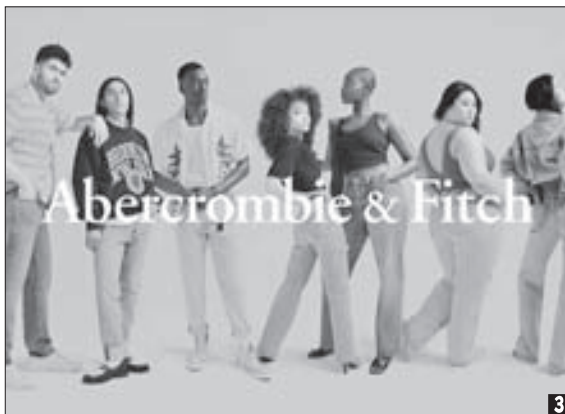
미움받던 이 회사가 지난해 엔비디아 제치고 S&P 상승률 1위

가치관과 이념, 취향의 구분이 뚜렷해지면서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우호 집단과 적대 집단이 맞서는 양상은 소비시장에서도 발견된다. 호불호의 차이가 작은 무난한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팬과 안티 소비자가 극명하게 나뉘는 브랜드도 있다. 예를 들어 7점 척도를 사용한 소비자 조사에서 한 브랜드는 4점을 중심으로 평가가 밀집하고 다른 브랜드는 양극단 점수의 비중이 크다면, 결과적으로 평균 점수가 같더라도 시장의 구성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애플, 테슬라 등 마니아 고객을 확보한 브랜드일수록 제품, 리더십 등 여러 측면에서 강한 불만과 반감을 지닌 안티 소비자도 많다.

‘영국 국민 잼’ 마마이트의 편 가르기 전략

소비자 반응의 편차가 큰 브랜드는 대립 구도를 활용해 팬 고객의 결집을 유도하고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영국의 잼 브랜드 마마이트(Marmite)가 대표적인 사례다. 1902년 출시된 마마이트는 국민 잼으로 통할 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우중충한 색과 독특한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다. 거의 매년 여론조사와 언론기관, 소셜 미디어 등이 마마이트 찬반 투표를 벌일 정도다. 2022년 Ipsos 조사에서는 영국 소비자의 94%가 마마이트를 먹어본 적 있고 그중 47%가 좋아하고 34%는 싫어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30여 년간 마마이트는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Love it or Hate it)’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마케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광고에서는 마마이트를 즐기는 사람과 그 맛을 역겨워하는 사람의 생생한 표정을 동시에 보여준다.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마마이트를 활용한 케이크, 파스타 등 열성 고객이 직접 개발한 다양한 요리법과 마마이트로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



1 '영국 국민 잼' 마마이트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Love it or Hate it)' 슬로건을 이용한 마케팅. 2 Abercrombie & Fitch의 과거(왼쪽 사진)와 현재. 3 크록스와 발렌시아가-미스치프와 협업.

같은 혐오 고객의 입장을 모두 공개한다. 맛을 개선해달라는 소비자들의 호소에도 1902년부터 사용해 온 레시피를 고수하며 대신 비타민 B가 풍부한 건강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편 가르기 전략의 효과는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 현상에서 비롯된다. 집단 극화란 처음에는 개개인의 생각이나 선호도가 큰 차이가 없어도 대립 구도가 설정되면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적대적 소비자들의 공격을 받으면 열성 고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제품과 브랜드

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입장과 일치하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며 더 강한 애착과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관심이 없거나 중립적이었던 소비자가 제품을 체험해보고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어글리 슈즈, 크록스

호불호를 가르는 속성을 활용한 부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마마이트는 독특한 맛을 강조한 엑소(XO) 소스와 피넛 버터, 트러플 잼을 연이어 출시하고 한정판 마마이트 맥주를 선보여 팬 고객의 호응을 얻었다. 편하고 실용적이라는 호평과 못생긴 신발이란 흑평이 팽팽하게 맞서 패션업계의 마마이트로 불리는 크록스(Crocs)도 못생김을 지렛대 삼아 브랜드 가치를 강화한다. 2018년 발렌시아가와 콜라보레이션 성공을 계기로 미스치프(MSCHF), 크리스토퍼 케인 등 유명 브랜드, 아티스트와의 협업이 이어져 가장 아름다운 어글리 슈즈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핵심 고객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못한 편 가르기는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고 충성고객이 반감고객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부른다. ‘멋진 10대를 위한 브랜드’를 표방하던 미국의 패션 브랜드 애버크롬비앤피치(Abercrombie & Fitch)는 클래식한 스타일과 섹시한 이미지를 조화시킨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2000년대 초반까지 전성기를 누렸다. 마케팅의 핵심은 목표 고객 이외의 시장을 철저히 배척하는 것이었다. 근육질 남성과 날씬한 여성이 등장하는 광고를 만들고 잡지에 나올만한 백인 젊은이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다. 큰 사이즈의 여성 의류를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했는데, 당시 CEO였던 마이크 제프리스는 뚱뚱한 고객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다.

애버크롬비와 함께 10대를 지낸 밀레니얼 소비자가 성장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외모가 뛰어난 백인만 고용하는 원칙, 아시아를 비하하는 그림을 사용한 티셔츠 등 비난거리가 이어졌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화이트 핫(White Hot)’은 당시 애버크롬비의 외모지상주의, 인종차별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직원, 성적 착취를 당한 모델의 소송 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불매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고,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브랜드로 지목당하는 처지가 됐다.

반감고객의 불만과 비난 이해 노력을

지난 5년간 애버크롬비는 고객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실천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30대를 핵심 고객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일상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캐주얼 정장, 파티 드레스 등을 중심으로 상품을 재편하고 운동복, 웨딩 라인을 론칭했다. 큰 옷은 만들지 않는다면 원칙도 버렸다. 여성 청바지의 경우 다양한 체형을 고려해 허리는 23~37인치, 길이는 4개의 옵션을 제공한다. 노력의 결과는 대성공이다. 2023년 매출은 전년 대비 15.8% 증가했고, 주가 상승률은 285%에 달해 엔비디아, 메타플랫폼스를 제치고 S&P500 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열정적 지지와 극단적 반감, 혐오가 뒤섞인 시장에서는 충성고객의 사랑을 바라는 만큼 반감고객의 불만과 비난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마이트는 혐오 고객과 열성 고객을 함께 주인공으로 내세운 전략으로 독보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고 브랜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 애버크롬비가 화려하게 부활한 것도 핵심 고객이 가진 반감의 씨앗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결과다. 충성고객과 함께 반감고객은 브랜드가 성장하는 긴 여정을 함께 하는 동반자이자 기업의 주요 자산이다.

최순화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1번 '한테크족'에서 이어집니다

달러 가치의 가장 큰 변수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꼽힌다. 홍준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질 3분기에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00원 선이 뚫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하를 전제로 했을 때 3분기 달러 환율 상단은 1420원, 4분기 상단은 138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강달러가 3분기 정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뒤이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해 한-미 금리차가 줄더라도 강달러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승

현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 부총재)는 “미국과 유럽 간의 통화정책 간극이 최근 달러 강세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데, 유럽은 기준금리를 내리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확신할 수 없다”며 “연준이 금리를 한 두 차례 내리더라도 ‘더 높게 더 오래(higher for longer)’ 추세가 상당히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1380원~1390원 선을 오갈 것”이

라고 분석했다.

달러에 비해 엔화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일본은행(BOJ)이 3월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이후에도 일본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엔화값 상승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수퍼엔저는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 때문인데, 미국의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일본 금리도 급격히 오르지 않는 한 양국의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

려는 움직임이 강해져 엔화 가치는 약세일 수밖에 없다. 백 이코노미스트는 “엔화는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수퍼엔저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달러의 경우 변동성이 큰 만큼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자산 헤지(위험회피)를 위한 장기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손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p style="font-size: 0.8em; font-weight: bold;">스시 식당</p> <p style="font-size: 0.7em;">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p>	<p style="font-size: 0.8em; font-weight: bold;">버지니아 상가건물</p> <p style="font-size: 0.7em;">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익 \$218,000</p>	<p style="font-size: 0.8em; font-weight: bold;">디시 유명 델리</p> <p style="font-size: 0.7em;">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 style="font-size: 0.8em; font-weight: bold;">Beer & Wine Shop</p> <p style="font-size: 0.7em;">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p>	<p style="font-size: 0.8em; font-weight: bold;">상가</p> <p style="font-size: 0.7em;">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p>
<p style="font-size: 0.8em; font-weight: bold;">식당 자리</p> <p style="font-size: 0.7em;">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p>	<p style="font-size: 0.8em; font-weight: bold;">단독 건물</p> <p style="font-size: 0.7em;">에난데일 최고의 상권, 2500 SF 식당, 카페, 맥주 전문점하면 좋은 자리 임대 문의 바람</p>	<p style="font-size: 0.8em; font-weight: bold;">사무실</p> <p style="font-size: 0.7em;">에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p>	<p style="font-size: 0.8em; font-weight: bold;">Beer & Wine Shop</p> <p style="font-size: 0.7em;">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p>	<p style="font-size: 0.8em; font-weight: bold;">상가</p> <p style="font-size: 0.7em;">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p>
<p style="font-size: 0.8em; font-weight: bold;">창고</p> <p style="font-size: 0.7em;">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임대 9000 SF, 헌트, 버지니아</p>	<p style="font-size: 0.8em; font-weight: bold;">사무실</p> <p style="font-size: 0.7em;">워싱턴 디시,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p>	<p style="font-size: 0.8em; font-weight: bold;">콘도</p> <p style="font-size: 0.7em;">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이 자리에 광고받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p>	

주 택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투자 컨설팅

사업 체

주재원 랜딩 서비스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와 투자자 기대차... 위험 요소

7월의 시장환경 분석

지난달 S&P500은 3.99% 상승했지만 이 랠리가 시장 전반에 걸친 것은 아니었다. 이는 리스크 요인이다. 이 기간 S&P500 기업 중 상위 50개 기업은 6.53%가 올랐다. 이들은 S&P500의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성적 면에서는 전체의 97%를 책임졌다. 나머지 450개 기업은 같은 기간 0.23% 오르는 데 그쳤다. 지금의 상승장이 시장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승장세와 하락장세 요인들

상승장세 요인 중 우선은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기업실적과 관련 대체로 낙관하고 있다. 전년동기 대비 약 8.8%의 수익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양호한 성격이 기대될 뿐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가 최근 수개월 간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를 상향 조정해 왔다. 이도 월가가 그만큼 현재 기업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런 기대치에 실제 부합하지 못하면 이는 상승장세 요인이 아닌 하락장세 요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

기술분석적 관점에서 볼 때도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랠리의 대부분을 '메가캡'이 담당했지만, S&P500의 가격패턴은 어찌 됐든 단기 및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형성돼 있다. 이는 상승장세와 관련, 최소한 아직은 장세가 바뀐 것으로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재 S&P500에 대한 기대수익도 긍정요인이다. 월가의 기대수익률이



상반기까지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다만, 하반기에 금리 인하, 물가, 실업률 등의 위험 요소가 해소되지 않으면 투자 시장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

장기적인 평균치 이상이다. 그만큼 향후 시장전망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자신감은 랠리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긍정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별 기업 종목을 보면 S&P500의 45%만이 현재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이는 하락장세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S&P500 기업의 과반수가 여전히 이 50일 이동평균선 아래 있기 때문에 상승장세 모멘텀이라는 측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다. 거래량 추이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증시의 거래 흐름을 보면 하락할 때 물량이 많아지고 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올랐지만 떨어질 때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징후로 읽을 수 있다.

다른 기술분석적 해석도 현재 시장이 고점 형성의 막바지 단계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고점을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시장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적절한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연준과 시장의 엇갈린 생각도 리스크 요인이다. 시장은 연준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연례 한 차례 금리 인하 스케줄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연준이 연말까지 실제 한 차례 0.25%포인트 인하에 멈춘다면 분명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반기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연준의 입장변화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물가, 금리, 연준

5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3.3%, 핵심지수는 3.4% 증가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기준으로 보면 전달보다 내려갔고, 월별 추이를 보면 지난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변동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5월 CPI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준이 경기를 더 어렵게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수준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채 수익률은 6월 중 계속 하락세를 탔다. 5월 CPI가 약하게 나온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추이와 통화정책 흐름과 연계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4.89%에서 시작해 4.91%가 빠진 4.65%에서 형성됐다. 투자자들의 자신감과 소비자들이 익숙한 모기지 금리 등의 기준치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4.51%에서 4.23%로 6% 이상 빠졌다. 30년물 국채수익률 역시 4.65%에서 시작해 4.36%로 떨어졌다. 이런 국채 수익률 하락은 시장이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말까지 최소한 두 차례 0.25%포인트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시장은 수익률을 내리는 것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 수익률의 변동성은 일반적으로 경기지표와 시장환경, 연준의 통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향후 국채 수익률은 연준의 정책 방향과 인플레이션 데이터, 실업률, 경기성장률(GDP growth), 잭슨홀 심포지엄 등 기타 경기지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8월에 있을 잭슨홀 심포지엄은 하반기 시장의 향배와 관련,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관련된 연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채권 수익률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장기간 높은 이자가 유지되면 그만큼 경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다.

현재 시장과 연준은 서로 다른 금리인하 스케줄을 갖고 있다. 지난 6월의 '경제전망 요약'에서 연준은 연말까지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다. 반면 시장은

연말까지 최소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유는 연준이 최근의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실적과 고용시장

애널리스트들의 대부분은 현재 2분기 실적에 대해 매우 낙관하고 있다. S&P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8.8%로 예상한다. 실제 예상치를 달성할 경우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런 예상치를 충족시키면 상승장은 하반기에도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고용환경도 달라졌다. 일자리 구하기가 확실히 어려워졌다. 팬데믹 이후 고용시장은 좋았다. 구직자 한 사람당 두 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 개 수준으로 줄었다. 정확히는 1.24개다. 전년보다 60% 이상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용시장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정상화됐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동안 유리한 고용환경에 익숙했던 이들에게는 낯선 환경일 수 있다. 심리적으로 더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실업률은 4% 선으로 고용시장 전반의 건강상태는 아직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언급한 대로 현재 연준의 금리인하 계획과 시장의 기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추이가 주된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는 이유다. 곧 있을 2분기 기업실적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역시 부정적인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리스크 요인들을 더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퀀치 애머리츠에셋 대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환율이 낮을 때 달러를 예치했다가 6개월~1년 후 환율이 오르면 인출해 환차익을 보는 외화예·적금 상품이 대표적이다. 외화예·적금은 원화에·적금처럼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환전수수료가 부과된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원화 자산을 분산투자하는 의미에서 달러 보유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적금을

을 눈여겨 볼만하다"고 말했다. "무위험지표 금리 추종 상품도 투자처" 달러 예수금 등을 보관하는 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 상품으로 자산을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RP는 증권사가 보유한 미 국채 등 외화 우량 채권을 일정 기간 이후 다시 매수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판매하는 채권으로, 하루만 투자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증권사별

수시 외화 RP 수익률은 세전 연 4~5% 대다. 다만, RP는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상품인 만큼 환율 변동에 따라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 백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환테크보다는 미국 채권, 주식 등 달러화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투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며 "미국 주식 등 달러 자산을 운용하면서 RP 상품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

다"고 조언했다. 환전수수료나 환율 우대율 등을 계산해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면 달러·엔 가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거래소에는 미국 달러선물지수를 추종하는 'Kodex 미국달러선물', 'Kodex 미국달러선물 레버리지', 'Kodex 미국달러선물 레버리지', 'Kodex 미국달러선물 레버리지(합성)', 일본엔선물을 추종하는 'TIGER 일본엔선물'

등이 상장돼 있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5월 기준 'Kodex 미국달러선물 레버리지'와 'Kodex 미국달러선물'의 올해 수익률은 각각 16.04%, 8.96%다. 흥 대표는 "무위험지표 금리(SOFR)를 추종하는 상품의 경우 미국 정책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질 가능성도 적고, 매매 비용도 비교적 저렴해 가장 합리적인 환테크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재정설계



클라우디아 송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

투자 성공위한 첫걸음

목표설정 및 투자계획 수립이 중요
자신의 리스크 성향 미리 파악해야

투자는 미래의 경제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다. 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투자 전략을 구체화하고, 특정 자산 배분과 투자 상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각 투자 목표는 투자자의 재정 목표와 개인적인 재정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목표 설정과 과정, 그리고 투자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전문적인 접근 방법으로 아래 4가지를 소개한다.

1. 투자자금 용도 설정

저축을 계획할 때 그 돈의 용도를 결정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은퇴 자금, 자녀 학자금, 가족 여행 자금, 은퇴 후 장기 요양비, 비상자금 등의 목표가 결정되면 각 목표를 위한 위험 수용 범위와 투자 철학을 반영해 적합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은퇴 자금이 목표라면 장기적인 자산 성장과 수익을 위해 주식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은퇴 시기가 멀다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 변동성이 큰 자산을 많이 포함할 수 있지만, 은퇴 시기가 가깝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덜 변동성 있는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한다.

반면, 비상 자금은 안전하고 저 위험한 투자를 선택해야 한다. 혹은 고정수입을 제공하는 유동성 있는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투자수익률 예측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리스크와 수수료다. 일반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면 잠재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수수료도 높을 수 있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펀드는 전문적인 관리와 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펀드 수수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형태의 수익(자본이득, 이자, 배당금)

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상 수익과 비용 대비의 효과는 어떤지, 신중하게 평가해서 결정해야 한다.

3. 리스크 감내 허용도 평가

모든 투자는 일정 수준의 위험을 수반한다. 이는 어떤 투자든 예상보다 성과가 좋거나 나쁠 수 있고, 심지어 투자한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성향, 돈이 필요할 때까지의 시간, 그리고 전반적인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스스로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전체 투자 금액의 몇 퍼센트까지 잃어도 패닉에 빠지지 않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현실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본인의 리스크 성향을 파악하고 고려해 투자에 임해야 한다.

4. 세금 상황 검토

일부 투자는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은퇴를 목적으로 하는 401(k), IRA, SEP, SIMPLE 등에 기여하는 투자는 해당 연도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각 주의 세법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의 대학 저축을 위한 529 플랜에도 소득세 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해당하지 않지만, 몇몇 주에서는 대학 비용을 위한 529 플랜에 기여한 금액을 연말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부 투자를 팔 경우, 그해의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에 투자에서 손실을 보면, 그 손실을 다른 자본 이득에서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투자할 때 혹은 팔 때는 나의 세금 상황과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 투자자의 특별한 필요와 상황에 따라 투자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로부터 받은 주식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재정 준비, 자선 활동에 대한 관심, 혼합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재정 목표, 리스크와 수익률, 그리고 세금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지식이 풍부한 재정 전문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상의하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경제 상식



김세주
Kadence Advisors, LLC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아마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작동하게 될 것이다. 공장의 기계를 사람의 도움 없이 자동으로 돌리기도 하고 날씨를 예측하기도 하고 가장 최적화된 통신망이나 전력 공급을 능동적으로 최적화하게 만들어 주기도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4차 산업혁명의 중추적인 5G는 통신 속도를 물리적인 제한된 속도를 최대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할 때 GPS와 자율주행과 연결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길을 잘못 찾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에지 컴퓨팅 같은 보완 기

술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인프라가 아닌 직접 사용할 기기들은 어떤 것들이 개발 중일 것인지가 차세대 유망 투자종목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AI PC, 즉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된 개인 컴퓨터이다. 사용자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향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컴퓨터에 대한 기대와 애플이나 베스트바이의 컴퓨터 판매 증가 예측도 주가 상승에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AI PC는 현재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기능 소화가 가능한 고성능 CPU가 팔컴, AMD, 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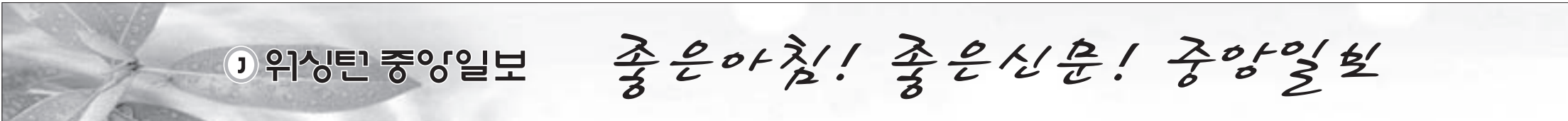
등에서 연달아 출시되고 있다.

애플도 마이크로 소프트가 설정한 기준치와는 다르지만 지난 5월 발표한 M4 chip에서 인공지능 컴퓨터에 준한 기능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마이크로 소프트는 자사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최저 능력 기준을 40 TOPS(trillion operations per second)로 설정했다. 인공지능 컴퓨터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못하겠으나 스마트워치 정도의 시장 공략 가능성이 기대되는 것은 스마트 글라스이다.

최근 메타(Facebook)와 협업을 하는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 애플사가 개발 중인 애플 비전 프

로 등 일반 핸드폰 기능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스마트 글라스도 투자자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애플워치도 차세대 모델에서는 혈압 체크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새로운 제품이나 기능이 출시될 때 소비자의 반응은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이 실제로 상품화되었을 때 소비자들에게 외면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인공지능이 포함된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지만 일단 나와서 사용해야 판도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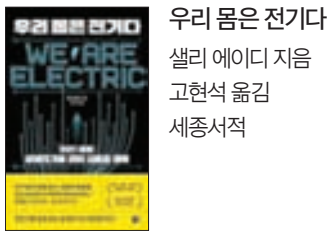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 1. 저렴한 비용
- 2. 편리한 물서비스
-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투자 지능지식)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갈바니·볼타 20년 논쟁부터 '전자약' 까지



우리 몸은 전기가
샐리 에이디 지음
고현석 옮김
세종서적



지은이는 생체전기의 다양한 연구를 소개한다. 머리에 미세한 전류를 통과시켜 사격 능력을 높이는 미군의 실험도 있다. [GettyImagesBank]

신경·근육·피부·뼈 등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의 세포에 전압이 있다. 과학저널리스트인 지은이는 이 생체전기의 역사와 미래 역할에 주목한다. 생체전기 덕분에 뇌는 몸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자극을 즉시 인지하고, 명령 신호를 보내 근육과 심장을 비롯한 장기를 작동시키며, 기억과 학습도 수행한다.

생체전기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거나 전달·작동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아프거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심지어 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 만일 인간이 생체전기를 통제하거나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면 질병 예방과 치료, 건강유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노화도 늦출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암을 일으키는 생체전기 조절기를 발견해 이를 뒤로 돌릴 수 있게 된다면, 악성 종양을 건강한 세포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심지어 세포와 장기는 물론 손발이나 팔다리를 재생할 수도 있다. 생체전기가 만드는 '융합한 신세계'다.

이러한 생체전기를 이용한 첨단과학 연구·개발은 이미 시작했다. 지은이의 참여 경험에 따르면 미군은 이미 9볼트 배터리에서 나오는 몇 밀리암페어의 전류를 머리에 통과시켜 사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범을 해왔다. 이 정도의 미약한 전류만으로도 신경계가 신호전달을 위해 이용하는 생체전기

의 흐름을 바꾸고, 운동실현 담당영역을 자극해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여 전투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이를 활용하면 전기자극 헤드기어를 쓰는 것만으로 평범한 사람을 무적 전사로 만들 수 있다.

생체전기는 질병 치료 분야의 수평선을 더욱 넓히고 있다. 권투 세계챔피언 무함마드 알리의 건강을 앓아가면서 유명해진 파킨슨병이 그중 하나다. 손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며 몸동작이 느려지는 증상의 파킨슨병은 운동과 호르몬 조절, 의욕과 학습 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뇌의 도파민 세포 변성으로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생기는 난치 질환이다. 도파민을 주사해도, 뇌로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혈액뇌장벽(BBB)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치료가 제한된다.

미국 과학자들은 뇌 깊은 곳에 미세한 전극을 삽입해 전류를 흘림으로써 증상을 완화하는 뇌심부 자극술을 개발해 한계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앞으로 이 방식을 응용해 간질·불안·강박장애는 물론 비만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것은 신체에 심는 '전자약'이다. 신경·장기·조직을 자극하는 쌀알 크기의 '전기 임플란트'인데 이미 일부 바이오 기업이 개발중이다. 쥐·돼지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당뇨·고혈압·천식은 물론 류머티스 관절염의 치료 효과도 확인했다.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의 길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5억4000만 달러를 벤처기업에 투자해 전기신호를 이용한 크론병과 당뇨 치료법 개발에 나섰다. 지은이는 생체전류를 이용한 이러한 새로운 질병 예방·관리·치료법을 '일렉트롬'이라고 부른다. 몸에 유익하고 질병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 군집 '바이옴'에 빗댄 표현이다.

사실 생체전기 연구의 역사는 18세기 이탈리아 과학자이자 '생체전기의 아버지' 루이지 갈바니와 '전지의 아버지' 알레산드로 볼타가 벌였던 과학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볼타나 의대 해부학 교수 갈바니는 개구리 뒷다리에 해부도를 대면 움찔하는 것을 보고, 동물 몸속에는 전기가 있으며 이 전기가 근육을 움직인다는 동물전기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파비아 대학 실험물

리학 교수 볼타는 개구리 다리를 움직인 전기는 동물전기가 아니라, 여기에 갖다 댄 두 금속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하면서 20년에 걸쳐 논쟁을 벌였다. 볼타는 동물 없이, 구리판과 아연판 사이에 소금물을 적신 헝겊을 겹겹이 쌓아 올려 전기를 발생시키면서 논쟁에서 승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볼타는 연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지를 개발해 오늘날 거대한 전기 문명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 전압의 단위원 볼트는 이런 업적을 남긴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갈바니는 근육과 신경전달의 패턴을 밝혀낸 생체전기 연구의 선구자로 인정받는다.

지은이에 따르면 정작 문제는 이 논쟁의 여파로 전기를 다루는 물리학과 생체전기를 다루는 생물학이 학문적으로 서로 분리돼 오랫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서로 다른 과학 분야 간의 소통·교류 단절은 오늘날에도 계속된다. 1995년 영국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암 생물학자 무스타파 잠고즈가 전기신호와 암의 관련성을 처음 제기하자, 학계는 이를 SF영화에나 나올 이론이라며 무시했다. 지은이는 생물학자는 생물에만 집중하고 전기는 물리학자나 공학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진부한 고정관념이 과학자를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생체전기를 이용한 의약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인류에 새로운 빛을 주려면 과학의 여러 분야가 서로 융합하면서 시너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제 We Are Electric: Inside the 200-Year Hunt for Our Body's Bioelectric Code, and What the Future Holds.

채인택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

오만했던 히틀러 잔혹했던 소련군



베를린 함락 1945
앤터니 비버 지음
이우영 옮김
글항아리

오는 9월 1일은 2차대전이 발발한 지 84년이 되는 날이다. 히틀러의 나치제국은 1939년 이날 폴란드를 침공했고, 이후 6년이 채 안 돼 연합국 소련의 대반격으로 수도 베를린이 함락되면서 최후를 맞는다. 나치의 종말을 부른 베를린 함락에 대해 그동안 많은 책이 기록하고 증언했지만, 앤터니 비버의 『베를린 함락 1945』(원제 Berlin: The Downfall 1945)처럼 디테일하게 다양한 시각으로 묘사한 저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전직 육군 장교에서 역사가로 변신한 비버는 러시아·독일·스웨덴 등 기록보관소의 자료, 개인들의 일기·회고록 등을 추가로 발굴해 베를린 최후의 날들을 생생하게 재구성했다. 군 출신답게 세세한 군사적 상황과 작전, 지휘관들의 활동과 태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무엇보다 전쟁의 참상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그려 큰 울림을 준다.

이 책은 나치군의 전세가 이미 기울어졌던 1944년 말 베를린의 스산한 풍경으로 시작해 히틀러가 자살한 8일 후이자 독일이 항복한 1945년 5월 8일까지의 가장 잔인했던 인간성 말살의 현장을 낱말로 고발한다. 히틀러의 오만과 오만과 허영심에서 비롯된 서부전선에서의 아르덴 대공세 실패, 실력이 아니라 충성심에 따른 군 인사, 군사첩보와 현실을 대놓고 무시하는 근거 없는 무모함 등은 이미 히틀러와 나치의 몰락을 예견하고도 남는 대목들이라고 지적한다.

히틀러와 달리 지휘관들의 반론에도 귀를 기울였던 '스타프카(소련 최고 사령부)'의 수장 스탈린, 필요할 때는 최고 사령부의 지시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승인된 전술 또한 기꺼이 바꾸곤 했던 소련 제3벨라루스전선군 체르냐호프스키 장군의 스토리는 흥미롭다. 무려 200만 명 넘는 독일 여성들을 무차별 강간하고 방화 등 무자비한 파괴와 약탈을 일삼았던 소련 붉은 군대의 만행도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1941년 소련을 침공한 나치독일군이 그곳에서 벌였던 처참한 학살극에 대한 보복이라 여기기에는 너무나 심한 내로남불이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러시아에서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베를린을 함락시켰던 소련은 붕괴되고 그 뒤를 이은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1년 반 넘게 전쟁을 끌고 있다. 이 책이 주는 교훈은 잊을 채말이다. 한정환기자

책꽂이



첫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다(김응교 지음, 마음산책)=시와 문학평론을 겸업하는 저자에 따르면 첫 문장은 야구 경기로 치면 1번이나 2번 타자, 제일 잘 치는 선수다. 책을 문장으로 지은 집이라고 할 때 첫 문장은 열고 들어가면 그 안의 세계가 보이는 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동서고금(東西古近) 첫 문장을 잘 쓴 소설이나 산문 37편을 소개했다.



꿈을 찾는 아카데미(김남수 지음, 무블출판사)=시커서가 아니라 내켜서 하는 공부가 갈수록 중요해진다. 그래야 더 효율적이고 성과도 더 좋다. 그러려면 꿈이 있어야 한다. 교육연구소 '꿈을 찾는 아카데미'를 설립해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하는 저자가 꿈을 막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법, 뇌를 깨우는 독서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달러의 시대는 저무는가?(이철환 지음, 다락방)=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 달러화는 기축통화로 올라섰다. 하지만 최근에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린다. 중국의 도전이 가장 거세다. 저자는 그러나 위안화가 달러화를 넘어서기는 어렵다고 본다. 중국 당국의 각종 규제, 안심하기 어려운 투자 환경, 수출 의존도 높은 경제구조 때문이다.



물의 도시 도쿄(진나이 히데노부 지음, 안천 옮김, 효형출판)=일본의 도시사학자인 저자가 도쿄의 도시 구조와 근대 이후의 변천사 등을 '물의 도시'라는 관점에서 펼쳐낸다. 스미다강과 니혼바시강 등의 역할, '물의 도시'에서 '물의 도시'로 바뀐 시대, 개발사에서 잊혀졌던 지역, 평범한 근교 주택지에 숨겨져 있는 공간의 맥락 등을 다뤘다.

방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T. 703-916-1111 / 703-916-1215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발목 잡았던 '엄마' 로 다시 뜬 개그우먼

개그우먼 정경미(43)는 MBC 라디오 '박준형·정경미의 2시 만세'를 진행하는 동안 두 아이를 낳았다. 2014년 첫째 출산 때는 진통이 오기 전날까지 방송을 했고, 딱 23일을 쉬고 복귀했다. 그 짧은 휴가 기간에도 '대타'들의 방송을 들으며 흑 자리를 빼앗길까 봐 마음을 졸였다고 했다. 2020년 둘째를 낳고서도 한 달밖에 안 쉬었다. 그만큼 일에 애착이 컸던 그였다.



램을 2022년 스스로 내려놨다. "매일 오후 생방송을 하느라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도록 내 손으로 하원 시킨 적이 없었다"는 걸 자각했을 즈음이었다. "우선 엄마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히며 자진 하차했다.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그 흔한 코스에서 그도 벗어나지 못했다.

출산휴가 23일에도 못 피한 경력단절
그랬던 그가 최근 '엄마' 캐릭터로 새로운 전성기를 열고 있다. 그가 방문 판매 주부 사원 역할로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 '판매왕 정경미'와 인스타그램 동영상 릴스 '엄마 시리즈' 등을 통해서다. '엄마가 웃이 많은 이유' '엄마들이 몰려다니는 이유' '엄마 핸드폰에 엄마 사진이 없는 이유' 등 엄마들의 특징을 콕 집어내 웃음을 끌어내는 '엄마 시리즈'는 평균 조회 수가 130만 회가 넘을 만큼 인기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 같았던 '엄마'가 그의 개그우먼 커리어에 강점으로 더해진 셈이다.

지난 1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그를 만났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 '방문판매 정경미'



정경미가 주부 방문판매원으로 등장하는 웹 예능 '판매왕 정경미'. 아래 사진은 숏폼 동영상 '엄마 시리즈'. [사진 디씨엘이엔티]

방송을 막 마치고 나온 참이었다. 그는 "네이버에 먼저 제안서를 보내 따낸 일"이라고 했다.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이 여전히 어려운 우리 사회 현실 속에서 그의 고군분투 역사는 길었다.

그가 '엄마'에 주목한 건 2016년부터다.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지만 불러주는 무대가 없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후배 개그우먼 김경아·조승희와 의기투합했다.

그는 "개그의 시작은 관찰"이라고 했다. 관찰로 찾아낸 공감 포인트가 개

그의 가장 큰 소재가 된다는 것이다. 엄마인 그는 엄마로 웃기기에 유리한 위치였다. 그 스스로와 주변을 관찰하며 소재를 찾았고, 육아 에피소드 중심의 개그 공연 콘텐츠 '투맘쇼'를 2016년 론칭했다.

"남편(개그맨 윤형빈)이 운영하는 흥대 앞 소극장에서 공연을 시작했어요. 티켓값이 2만원 안쪽이었는데도 관객 모으기가 힘들더라고요. 공공기관을 공략하기로 하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다 뒤졌죠. 가족·육아와 관련된 부서 주무관님들한테 일일이 연락해 '이런 공연이 있는데 제안서 한번 보내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자리를 잡았어요."

2019년 개그우먼 김미려까지 합류한 '투맘쇼'는 지금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500회 넘게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엄마'서 웃음 포인트 발굴, 개그 소재로

2022년 라디오 방송 하차 이후 그는 '엄마'를 소재로 또 한번의 새로운 도전을 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라이브 커머스 '방문판매 정경미'를 기획했다. 그해 9월 주 1회로 시작한 '방문판매 정경미'는 이제 월 13회로 횟수가 늘었다. 그리

고 올 1월 쇼핑 라이브 속 방문판매 주부 사원 컨셉트를 웹 예능 '판매왕 정경미'로 확장했고, 그 캐릭터 그대로 숏폼 동영상 '엄마 시리즈'까지 제작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 명실공히 출산 기피 시대다. 지난달 대통령은 '인구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워킹맘이 겪는 고통은 이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투입한 예산이 300조원이 넘는다는데, 경력 단절을 거쳐본 그는 할 말이 많았다.

"다양한 직업군에 맞게 지원 정책이 디테일하게 이뤄졌음 좋겠어요. '빨간 날' 출근하는 직업도 많은데..."

세상의 변화는 더디다. 하지만 '통란'을 계획하는 그의 일하는 방식은 바뀌었다. 라디오 진행사 시절 그는 휴가를 3박4일씩만 썼다. 그 기간의 방송은 녹음을 해두고 갔다.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주는 게 싫어서였다. 지난달 그는 제주도로 보름간 휴가를 다녀왔다. "아이들이 좋아하니 됐다 싶더라"는 행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로 내가 잘하는 것을 만들어 내 무대를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이지영 논설위원

"호른만의 소리 내겠다" 30년만의 독립선언

호른은 숨 들어가는 구멍은 좁고, 음역은 넓은 악기다. 그래서 흔히 부정확하다. 하지만 호른 연주자 김홍박(42)은 청중을 안심시킨다. 안정적인고 깊은 소리로 오케스트라에서 호른의 역할을 다한다.

그의 경력은 한국 호른 발전사의 한 페이지와도 같다. 지휘자 정명훈에게 발탁돼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수석으로 활동했을 때 25세였다. 이어 스웨덴 왕립오페라 오케스트라를 거쳐, 런던·스톡홀름·예테보리 등의 악단에서 연주했다. 2015년 노르웨이 오슬로 필하모닉의 수석이 됐다가 지난해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며 귀국했다.

그런 김홍박이 이달 5일 첫 솔로 음반을 내고, 곧 같은 곡으로 독주회를 연다. 중학교 1학년 때 호른을 시작해 올해로 30년째지만, 독주 녹음·공연은 처음이다. 지난달 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는 "지금까지 가졌던 악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중"이라고

했다.

-많은 청중이 '호른 연주자의 모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악기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네, 6월 1일과 2일이 다르고, 3일, 4일이 달라요. 다르게 연주해야 한다고 느끼고,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죠."

-무엇 때문인가요?

"오케스트라 녹음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영에서 첫날 녹음하고 들어보니 너무 절제하고 위축돼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튿날부터 싹 지우고 다시 녹음했어요."

-오케스트라 연주 때와 많이 다른가요?

"호른은 오케스트라에서 좋은 배경이 되는 악기죠. 교향곡 작곡가들이 호른과 오보에는 길게 끄는 음들을 특히 많이 썼어요. 그 안에서 다른 악기들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저는 부드럽고 안정되게 받쳐주는 소리를 내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독주로 녹음을 해보

니 제 모든 감정을 다 뽑아내는 소리를 내야겠다고요."

-오케스트라에서 안정적인 플레이어로 명성을 얻었는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 하는 거네요.

"사람의 호흡은 아주 예민하고, 호른은 그 예민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악기예요. 그래서 틀리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더 틀려요. 긴장해서 호흡이 충분히 안 실리거든요. 표현에 집중하면 알맞은 호흡이 나와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감쌀 수 있도록 부드러운 호흡을 내야지' '이 표현에 맞는 숨을 넣어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하죠. 사실 훌륭한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는 호른이 틀리는데 신경 안 써요."

-호른 독주 음반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네요. 독주자로서 어디까지 가보고 싶나요.

"제 선생님이 라도반 블라트코비치



를 비롯해 옛 시대의 테니스 브레인, 헤르만 바우만 정도가 솔리스트로 꼽히는 것 같아요. 한 너댓 명이죠. 저는 이제 첫 솔로 음반을 냈으니 호른 인생의 2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른의

가능성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번 독주회에서 5명, 10명만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더 나아가 보는 거죠."

그가 녹음·연주하는 곡 중 브람스의 호른 3중주, 슈만의 아다지오와 알레그로는 작곡가가 호른을 위해 쓴 음악이다. 브람스는 하나의 관에서 호흡과 오른손으로 음정을 바꾸는 내추럴 호른을, 슈만은 새로운 밸브 시스템으로 관의 길이와 음정을 자유롭게 바꾸는 개량된 호른을 이용했다. 슈만의 환상 소곡집(클라리넷 또는 첼로)과 세 개의 로망스(오보에)는 호른용으로 편곡해 연주한다.

김홍박은 "잘츠부르크 유학 시절 라도반 선생님이 한 허름한 교회에서 연주한 브람스 3중주의 첫 두 음을 잊지 못한다"며, 이 작품을 이번 공연의 '결정적 한 곡'으로 꼽았다.

공연은 이달 13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피아니스트 박종해,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이 함께 한다.

김호정 기자·사진·장진영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7월 HOT 리스팅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비엔나 타운홈
방3+와3+차고2
2001년, 2100sf
젤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로로 5분거리
\$970,000

페어팩스

- 타운홈 방3+와3, 차고1 **\$70만불대**
- 타운홈 방3+와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 타운홈 방3+와3 **\$45만불~\$60만불**
- 타운홈 방3+와3, 차고1 **\$60만불대**
- 타운홈 방4+와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르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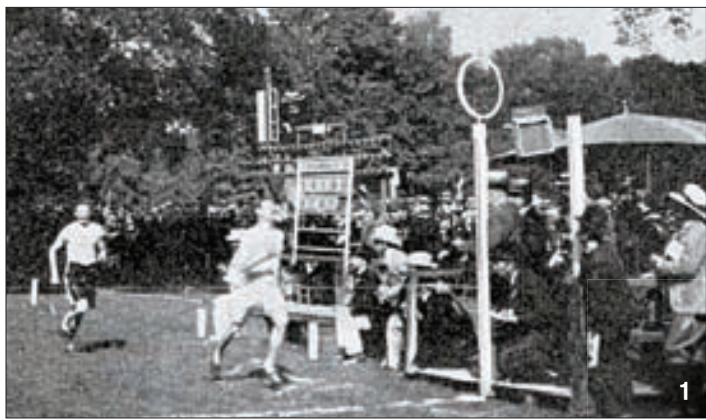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에펠탑 그늘 아래 인종을 전시하고 여성을 혐오하다



1900년 파리 올림픽에서 여성 첫 금메달리스트가 된 테니스 선수 샬럿 쿠퍼. [사진 위키미디어]



1900년 파리 올림픽은 5개월 동안 경기가 열렸다. 1 육상 1500m 결승선에 도착하는 선수들, 2 줄다리기도 당시 정식종목이었다. [사진 위키미디어]

파리는 강과 다리의 도시다. 센 강이 파리를 상징하는 힘은 로마의 테베레 강이나 피렌체의 아르노 강을 압도한다. 강은 파리의 일부가 되어 제 흐름을 지킨다. 그리고 다리들이 그 위에 얹드려 인간의 걸음에 등을 맡긴다. 삶이 희극이든 비극이든, 센 강도 다리들도 개입하지 않는다. 희극일 땐 희극의 일부가 되고 비극일 땐 비극의 일부가 된다. 그래서 수많은 소설과 영화가 센 강에 걸린 다리 위에서 시작되거나 끝난다.

소설 『개신문』의 주인공 라비크는 얼마 다리에서 조양 마두를 만난다.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댄스’에서 주인공들은 비라캉 다리에서 처음 만난다. ‘미드나잇 인 파리’는 알렉상드르 3세 다리에서 시작하는 새 사랑의 예고로 막을 내린다. ‘퐁네프의 연인들’은 노숙하는 남자와 시력을 잃어가는 여인의 사랑을 그렸다. 아폴리네르는 노래했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센 강이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흐른다.’(‘미라보 다리’)

하지만 당신이 파리를 떠날 때, 냉장고에 불일 마그네틱을 구입한다면 거기엔 강물도 다리도 없을지 모른다. 우리는 추억을 기념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당신은 에펠탑이 들어간 그림엽서와 열쇠고리를 선택할 것이다. 수전 슈투어트는 『갈망에 대하여』에서 기념품을 ‘노스탤지어, 즉 기원을 향한 갈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물’로 규정한다. 그가 보기에 에펠탑 모형 같은 기념품은 “노스탤지어라는 충족될 길 없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물건”이다.

에펠탑은 알렉상드르 귀스타브 에펠이 설계했다. 그의 작품은 파리 시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소설가 기드 모파상도 에펠탑을 혐오했다. 그는 파리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 탑의 2층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악마의 표식이라던 이 흉물은 파리 풍경의 디플트였고, 결국은 아이콘이 되었다. 이런 현상을 ‘에펠탑 효과’라고 한다.

24개국 997명 참가 5개월 동안 경기 파리는 1899년 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에펠탑을 세웠다. 파리는 1855년부터 1937년 사이에 모두 8차례 박람회를 연다. 에펠탑이 기념한 박람회는 4번째다. ‘벨 에포크’의 한복판, 광대한 해외 식민지를 보유한 프랑스의 전성기다. 제국주의·오리엔탈리즘·인종차별이 박람회를 지배했다. 파리는 에펠탑 가까운 곳에 흑인과 카나크 족의 마을을 지었다. 흑인 마을엔 세네갈과 가봉 출신 아프리카인, 카나크 족의 마을엔 뉴헤브리디스 제도 등 남태평양 식민지의 주민을 전시했다. 1900년 박람회에도 ‘인간 동물원(Human Zoo)’은 빠지지 않았다. 남미, 아시아의 인종, 풍물관까지 등장한다. 파리박람회의 유산은 우리에게도 상흔을 남긴다. 유럽의 문물이라면 뭐든 훔쳐낸 제국주의 일본은 1907년 3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쿄에서 박람회를 열었다. 이때 ‘학술인류관’이라는 공간에 조선인을 전시했다. 4년 전 오사카 박람회에서 조선 여성 두 명을 구경거리로 내몰린 일본은 이번에도 상투를 튼 남성과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성을 전시했다. 조선은 분개했다. “예전에 우리가 아프리카 토인종을 불쌍히 여겼더니 오늘에 이르러서는 어찌 그들이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게 될 줄 알았으리오.”(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21일자)

파리 올림픽은 파리가 주최한 5번째 박람회의 여러 행사 가운데 하나다. 벨로드롬 드 뱅센을 주경기장 삼아 24개국 선수 997명이 참가해 19개 종목 95개 경기를 했다. 대회 기간은 5개월이 넘었다.(1900년 5월 14일~10월 28일) 난장 같은 이 행사가 올림픽임을 아는 시민은 거의 없었다. 올림픽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대회 운영권을 만국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넘겼다. 만국박람회 공식보고서는 ‘국제 체육 및 스포츠 대회’라고 기록했다. 피에르 쿠베르탱은 “올림픽이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고 했다. 처량한 고백이다.

파리 올림픽은 종목에 따라 경기력 차이가 컸다. 10개국 이상 참가한 종목은 육상·수영·펜싱 뿐이었다. 대학 선수가 주축을 이룬 미국의 육상은 강했다. 테니스엔 워블턴 챔피언들이 참가했다. 수영과 펜싱의 경기 수준도 높았다. 나머지 종목의 경기력은 낮았다. 축구가 올림픽 무대에 데뷔했고, 줄다리기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대회의 수퍼스타는 육상 4관왕 앨빈 크렌즐린(미국)이다. 크렌즐린은 60m(1904년 올림픽부터 제외)와 110m 허들, 200m 허들, 멀리뛰기에서 우승했다. 그의 위업은 1936년 제시 오언스(미국)가 재현한다. 오언스는 베를린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계주, 멀리뛰기 등 4종목 금메달을 따냈다.

파리 올림픽은 여성이 처음으로 참가한 대회다. 4년 전 아테네 대회에는 여성 참가자가 없었다. 영국의 샬럿 쿠퍼는 1900년 7월 11일에 열린 테니스 여자단식 결승에서 프랑스의 이본 프리보를 2-0(6-1, 6-4)으로 물리쳤다. 올림픽 역사상 첫 여성 챔피언의 탄생이다. 쿠퍼는 혼합복식에서도 우승, 최초의 여성 2관왕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워블턴에서 다섯 번 우승한 쿠퍼는 당시 여성 선수로는 드물게 오버헤드 서비스를 구사했고, 공격적인 경기를 했다.

쿠퍼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의 히로인 슈테피 그라프를 연상시킨다. 그라프는 그랜드 슬램 대회(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워블턴, US 오픈)와 올림픽을 모두 제패해 ‘골든 슬램’을 달성했다. 쿠퍼가 놀라운 점은 26살

때 청력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국제 테니스 명예의 전당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쿠퍼는 첫 우승을 빼고는 모두 청각에 의지하지 않고 우승했다. 상대 선수의 샷을 읽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포기한 채.’

쿠퍼의 우승을 쿠베르탱은 어떤 기분으로 지켜보았을까. 쿠베르탱은 여성의 올림픽 참가를 반대했다. 그에게 스포츠는 남성의 일이었다. 여성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한 인종이었다. 쿠베르탱은 1912년에 발표한 ‘올림픽 경기에서의 여성들’에서 여성의 참여를 ‘타무니없다’고 표현했다. 1920년 안트베르펜 올림픽이 열렸을 때는 여성을 올림픽에서 영원히 추방하자고 제안했다. 1925년 프라하에서 개최된 올림픽 총회의 개막 연설에서는 “여성의 올림픽 참가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1931년에도 여성이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쿠베르탱은 1934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근대올림픽 40주년 기념식에서 한 술 더 떠다. “여성 운동선수를 가까이 하는 것은 남성에게 이로운 것이 없다”. 1935년 라디오 스위스 방송에 출연해서는 “올림픽에서 여성이 할 일은 남성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여성은 승리자를 위한 전리품에 불과했다.

쿠베르탱, 고대 남성들의 제전 부활 꿈 쿠베르탱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했든, 여성은 올림픽의 주인공이 되었다. 여성 선수가 한 명도 없었던 아테네 대회와 달리 파리 올림픽에는 22명이 참가했다. 24년 뒤 파리가 다시 한 번 올림픽을 주최할 때는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다(135명).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는 4069명, 가장 최근인 2020년 도쿄 올림픽에는 5457명이 참가하였다. 지금까지 여성 올림픽 참가자 수가 남성보다 많았던 적은 없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쿠베르탱은 왜 여성의 올림픽 참가를 반대했을까. 고대 그리스의 역사와 문화에 심취한 결과라는 주장이 있다. 고대 올림픽은 남성들의 제전이었다. 쿠베르탱은 올림픽의 영구 개최를 원하는 그리스의 뜻을 꺾고 개최권을 파리로 가져갔다. 그는 파리에 올림픽 피아를 건설하기를 원했다. 그리스의 유적지에 흠여진 조각 작품과 경기 시설을 파리에 복원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파리박람회를 총괄한 알프레드 피카르는 생각이 달랐다. 시대의 첨단을 걷는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옛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수는 없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쿠베르탱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쿠베르탱의 꿈은 36년 뒤 베를린에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현실이 된다. 허진석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MD 301.775.2774**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1933년 개업한 '제비' 다방, 그 주인은 시인 이상이었다

1936년 1월 『조선중앙일보』에는 이용악의 '다방'이라는 시가 실려 있다. 당시 다방이 지닌 아우라를 표현한 시였는데, 아래와 같이 시작한다.

바다 없는 항해에 피곤한
무리들 모여드는
다방은 거리의 항구...

인용에서 시인은 다방을 고단한 삶의 여정에 지친 무리들이 모여드는 항구에 비유하고 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주머니를 털 커피 한 잔에 고달픈 생각을 위로하는 공간이라고도 한다. 시에 나타난 것처럼 당시 다방은 한편으로 암울한 굴레라도 같았던 식민지 현실, 다른 한편으로 부모-가정-사회라는 일상의 속박에 지친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공간이었다.

채만식 역시 1939년 7월 잡지 『조광』에 발표한 글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다.

활짝 단 가스난로 가까이 푸근한 쿠션에 걸터앉아, 잘 끓은 커피 한 잔을 따끈하게 마시면서 아무것도 그때 건 명곡 한 곡조를 듣는 그 안일과 그 맛이란 역시 도회인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낙인 것이요.

길을 걷다가 다방에 들르면 커피와 더불어 포근한 자리와 우아한 음악이 반겨준다는 것이다. 앞선 이용악의 시에서 다방을 고단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항구라고 비유한 것과 겹쳐지는 부분이다.

칼피스·소다수·포틀랩 등도 팔아
식민지 조선에 다방이 들어선 건 다른 근대의 문물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거쳐서였다. 본정(本町)과 명치정(明治町)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다방들은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조선의 상권이 발달했던 종로로 진출한다. 조선시대부터 한양의 중심가였다. 종로의 위세는 식민지 시대에도 이어졌지만, 종로라고 다 같지는 않았다. 종로를 대표하는 중심가는 역시 종로 1가와 2가의 경계에 위치한 종로네거리였다. 종로의 다방들이 종로네거리를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식민지 시대 종로네거리 주변에는 어떤 다방들이 들어섰을까?

먼저 문을 연 다방이 있었다는 게 밝혀짐에 따라 빛이 바랜 바 있지만, '카카듀'는 조선인이 처음 개업한 다방으로 주목 받아왔다. 그런데 그런 주목도에 비해서 정작 알려진 바는 적고 위치와 시기마저 정확하지 않은 듯하다. 대부분의 학술적 논의에서 다방이 문을 연 시기를 1927년이라고 하지만, 1928년 9월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개업 시기는 1928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듯싶다. 위치는 지금의 관훈동인 관훈정(寬勳町) 초입에 우뚝 서 있던 3층 벽돌집 가운데의 1층 자리였다고 한다. 지금으로는 최초의 우체국으로 보



조선인이 처음 개업한 다방인 카카듀의 모습을 추정해 표현한 작품. [일러스트 김민희]



1937년 종로 2동목(현 종로2가)에 위치한 카바레 낙원회관. [사진 서울역사박물관]

존되고 있는 우정국의 맞은편 부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카카듀의 주인은 영화 '심청전' '춘화' 등을 감독하는 등 초기 영화계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이경손이었다. 그런데 이경손만큼 주목을 받는 인물은 카카듀의 카운터를 지켰던 현엘리스라는 여성이다. 그녀는 하와이로 이주했던 현순목사의 딸이었는데,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던 아버지를 도우면서 역시 그쪽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카듀는 김진섭·이선근·유치진·정인섭 등을 구성원으로 했던 '해외문화회'와도 인연이 깊었다. 카카듀라는 이름 역시 김진섭과 이선근이 대화를 나누다가 지었다고 한다. 입구에 간판 대신 붉은 칠을 한 박을 건다든지, 가면(假面)을 이용해 내부 장식한 것은 정인섭의 솜씨였다. 그런데 카카듀는 생각만큼 영입이 시원찮았는지 수개월 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멕시코'는 1929년 11월 김인규가 문을 연 다방이었다. 덕흥서점 옆인 옛 낙원회관 맞은편이었는데, 지금으로는 종로타워와 YMCA의 사이 정도 된다. '멕시코'는 당시로는 물론 지금으로 봐도 눈에 띄는 외관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 '멕시코'라는 희고 큰 간판 위에 커다란 물주전

자를 매달아 놓은 모습이 그것이었다.

내부를 장식하는 데는 구분용·도상봉·안석주 등 김인규의 지인들이 도움을 줬다고 한다. 벽은 흰 마대조각으로 장식했고, 커튼은 염색을 한 광목을 사용했다. 벽과 커튼은 빨강과 검은 원색을 사용해 원초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살리려 했다고 한다. 거기에 최승희의 무용하는 사진, 영화 '모나리자의 실종(Der Raub der Mona Lisa)', '스페인 광상곡(The devil is a woman)' 등의 포스터를 걸어 놓았다고 한다.

이 다방 '멕시코'는 낙원정과 가까웠는데, 그 일대는 요릿집이나 카페가 밀집한 곳이었다. 그래서 요릿집에서 연회를 마친 손님들과 여류, 기생 등이 2차를 가기 위해 은밀히 만나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종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다방 '뿐아미'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도 흥미롭다.

종로의 다방을 둘러보면서 '제비'를 뵈 수 없을 것이다. 이곳은 '날개' '오감도' 등으로 유명한 시인 이상이 1933년 개업한 다방이었다. 위치는 종로네거리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종로경찰서를 조금 지나서였는데, 지금으로는 종각역에서 피맛골 사이 정도가 된다. 외관은 앞쪽을 전부 유리창으로 장식해 제비를 찾은 손님이 종로를 오가는 사람들과 전차를 볼 수 있게 했다.

이상과 막역한 사이였던 박태원이 다방 제비에 관해 쓴 글을 보면 이상은 장식도 없는 벽 중간에 그림으로 걸려 있었을 뿐 가게를 자주 비웠다고 한다. 그래서였는지 일하는 아이 '수영'을 두었는데, 수영은 손님 오면 아래와 같이 응대한다.

"무얼 드릴갑쇼?"
"저- 나는 포트-랩, 자넨, 칼피스?"
"지금 안 되는뎡쇼. 무어 다른 걸루?"
"안돼?- 그럼 소-다수이."

"그것도 안 되는뎡쇼."
"그것도 없다?- 그럼 무어 되나?"
수영은 눈썹 하나 까딱 않고 천연스레 대답한다.
"홍차나 고-하나."

실제 제비는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영업을 한 기간은 2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뒤통이 바늘만 지 가게를 자주 비웠던 주인과 커피와 홍차만을 제공했던 종업원을 보면 제비 다방이 서둘러 문을 닫은 이유를 알 것 같다.

"다방은 커피 마시는 기분을 파는 곳"

의도치 않게 박태원의 글은 종로의 다방에서 팔았던 메뉴를 알게 해 준다. 칼피스·소다수·포틀랩 등이 그것이다. 칼피스는 우유에 유산균을 넣어 발효시킨 음료로, 요즘도 일본에 가면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다. 소다수는 탄산음료를 가리키는데, 당시에는 라무네·시트론·사이다 등이 인기 있었다. 포틀랩은 적포도주에 뜨거운 물을 붓고 설탕을 탄 음료다. 다방에 따라 맥주·아이스크림·코코아 등을 팔기도 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다방을 즐겨 찾았던 사람들이 '다방'과 '커피 파는 곳'을 구분했다는 것이다. 채만식은 앞의 글에서 미스코시백화점 식당, 명치제과는 커피를 파는 가게이지 다방은 아니라고 했다. 현민 역시 '현대적 다방'이라는 글에서 다방은 그냥 '커피만 파는 가게'가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기분을 파는 곳'이라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손님들은 커피만을 마시기 위해 카카듀·멕시코·제비 등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들은 다방에서 아는 얼굴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또 지인이 없으면 빅터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이나 재즈를 들으며 잠시나마 삶의 고단함이나 감박함을 잊곤 했다.

당시 다방이 어떤 공간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시인 이상의 글이 있다. 이상은 사람이 쫓조차 고독하다면 그것은 정말 외로운 일이라며, 다방은 고독한 쫓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하는 공간이라고 한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덧붙인다.

그리고 저마다 별도의 의미로 천진한 꿈을 꾸다. 그리고 물건을 잃고 돌아간다.

그런 점에서 순수하고 좋으며, 그윽한 매력에 되어 언제까지나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다방을 찾는 손님들은 물건을 잃고 돌아가지만 천진한 꿈을 얻어 가는데, 그것이 매력에 되어 언제까지나 남는다는 것이다. 글의 서두에 인용한 이용악의 시는 다방의 유연한 분위기 속에서 기약 없는 여정을 반추해 보자는 구절로 마무리된다. 이용악이 노래한 다방의 의미 역시 이상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박현수 성균관대 학부대학 대우교수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투자 리스닝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p>SOLD</p> <p>Bowie</p> <p>\$645,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p>	<p>UNDER CONTRACT</p> <p>Edgewater</p> <p>\$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p>	<p>SOLD</p> <p>Rockville</p> <p>\$280,000 콘도</p>	<p>COMING SOON</p> <p>Perry Hall</p> <p>싱글홈, 방3, 화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559,000 타운홈, 방4, 화3, 차고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950,000 싱글홈, 방5, 화3.5, 차고2</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p>	<p>COMING SOON</p> <p>Rockville</p> <p>싱글홈, 방5, 화2, 차고2</p>	<p>SOLD</p> <p>Cockeysville</p> <p>\$470,000 싱글홈, 방4, 화2.5</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Elkridge</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3</p>	<p>Sliver Spring</p> <p>월 \$3,500 타운홈</p>	<p>Germantown</p> <p>월 \$2,100 콘도 방2, 화2</p>	<p>Hanover</p> <p>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p>	<p>Germantown</p> <p>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p>	<p>Glen Burnie</p> <p>월 \$1,750 콘도 방2, 화1</p>
--	--	---	--	---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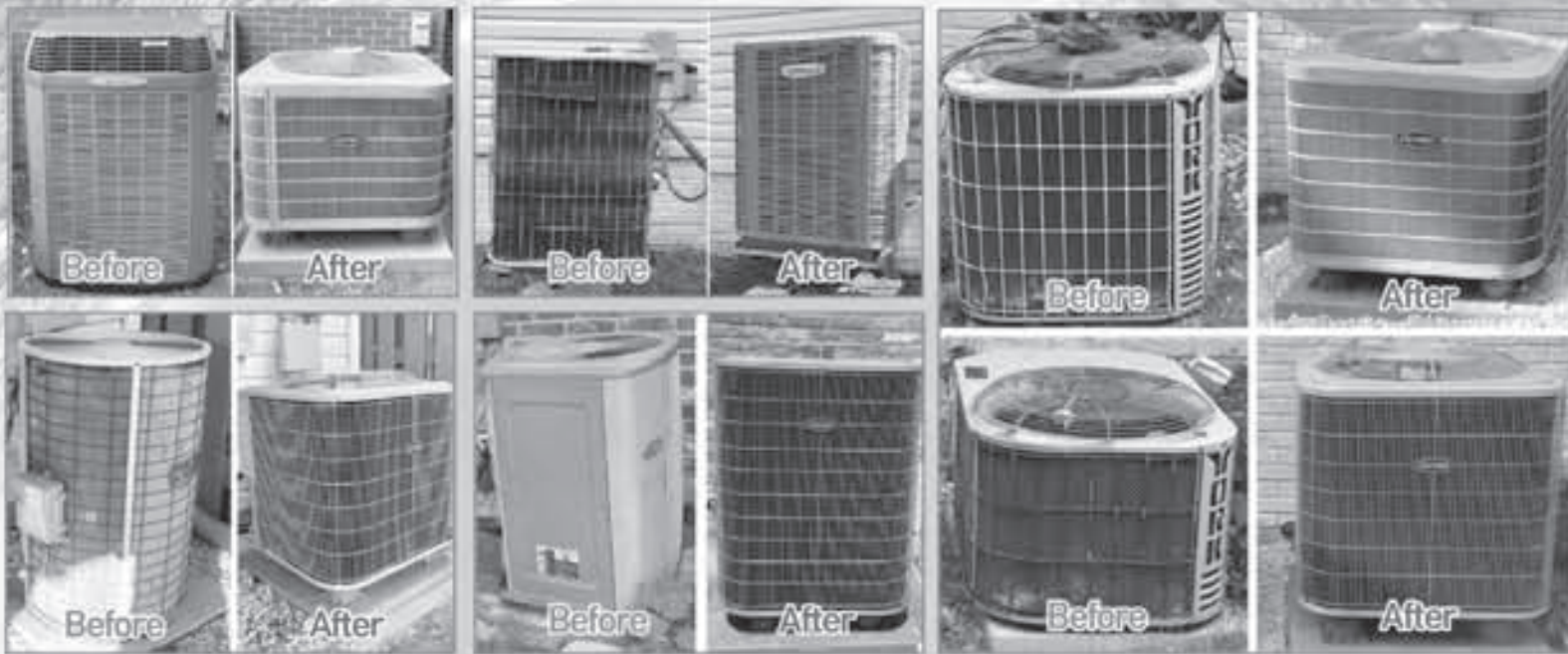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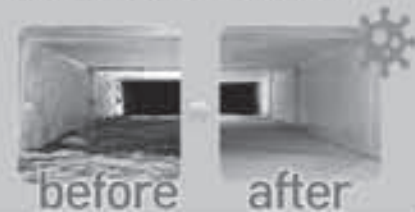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7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

**뉴욕 광어낚시
동우회 회원 모집**

마감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 마감

주말 금요일 밤
Frederick(MD)
270, 80 교차로 E.
EXXON GAS STATIONS에서
3명 이상 모여서 출발.

토요일 아침 뉴욕에
도착해서 Seo Queen VII Boats
7시 보트 출발, 차량, 낚시대 완비

202.553.85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O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 풀타임/파트타임
- * 영어/컴퓨터 사용
-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7월 8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중앙일보 애독자 분들께 알립니다
오는 7월부터 생활안내 섹션 출판고가 1개월 \$20 유료광고로 전환을 알립니다. 기존과 신규 일반광고주는 계속해서 무료로 출판고 서비스 해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판고로 무료 게재하지 않습니다. 생활안내 무료 광고를 애용해주신 분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후권과 관심, 지속적인 이용 바랍니다.

단체 광고 문의 접수 받습니다.
보험, 골프레슨, 홈비즈니스 등 같은 전문 분야 분들이 공동 광고를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꾸준히 이미지전달을 통해 사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리세요.
▶ 자세한 문의: 703-281-9660 또는 kdclass2018@gmail.com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인/구직

▶▶▶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 (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 (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332-2101(문자요망)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월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엇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탐 여행사 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서: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 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산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사무실
경험자 우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푸드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가능자, 취업비자/영주권 스폰서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 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 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력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x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라빌/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 우대. 엘리엇시티
240-426-5678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채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싱 등)
-시간: 주 32 ~ 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시간: 주 48 ~ 52시간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티어링 점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 우드브릿지 지구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음식점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속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센터빌 K-밥상 (롯데 푸드코트)
가족같이 일하실 캐쉬어 구합니다.
443-864-0091

엘리엇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MD 콜럼버니아 지역 Severna Park

식당/제과/델리/식품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현존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 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첸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 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가능
(571)215-6767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첸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 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엘터레이션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 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동글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첸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 301-537-3800

연합감리회 위상통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마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센스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전화: 703-955-2827 / 540-680-1571

에어콘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창문형 3개, 이동형 1개

정비/바디샵

703-635-9998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착사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력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노임 전문 변호사 구함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트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
다. 월-금, 오후 3PM - 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홀출아서 해주실분
(703) 473 6022.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분
은퇴하신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퓨터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링 주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 703-244-3453

애난데일 Hmart 옆 \$2,300
방3, 화2, 유보(전기별도) 7/1 입주 가능
703-975-0123

부동산 렌트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잔디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가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114 Birch St /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가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 학생 또는 직장여성
육실별도/세탁기 월 \$640(유보)
대답업으면 메시지요망 614-615-9054

MD 락빌 홀푸드 근처.
1180sq/2bed/2bath
3 & 4층 복층콘도. 좋은 학교
전체 새마루. 7월 중순 입주 가능.
571-331-4746 (text 가능)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중집. \$1,700
702-622-8853

방 렌트

▶▶▶ 열린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장실1. 냉방고. 인터넷 취사가
가능. 출입문별도 금연자 즉시입주
(571)243-6295

맥크린 싱글하우스에서
유학생 홈스테이 구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703-307-2473 Fairfax VA 비엔나 전철역
근처 66도로 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개인 샤워실, 키친, 냉방고, 침대,
개인 주차 자리도 있습니다.
571-232-6052

TTA 애난데일 콘도 방1, 주방/욕실/지정주
차가, 세탁기/냉방고, 남자분/금연자
571-355-6624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 703-470-5238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심신이 편안한 생활을 위한 단층주택, 1층 콘도, 텃밭이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시니어 고객 전문
부동산인이 준비 상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주차난이 심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병원, 그로서리, 레스토랑, 교통(1-66, 29, 28번 도로)이 원활한 지역에 소재한
생활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올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벗어나세요.

추천물건

		
근교 단독주택 \$574,000 23에이커, Rambler, Ground Level, No HOA	단독주택 \$526,000 방3, 화3, 차고1, 2000스퀘어, 2004년도	55+ 시니어 주택 \$510,000 2024년도 신축, 방2, 화2, 차고1, HOA (\$150)

*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때 번거롭게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집을 손볼 곳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시?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828282.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7월 8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롯데, H-Mart 2분. 출입문 별도, 인터넷, 화장실, 샤워, 유틸리티 포함. 출퇴근 하시는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센터빌 콘도, 방2, 학자실2, 2층, Loft애넌데 일 도서관서동쪽 0.7마일 콘도 방1, 취사가, 월 \$840(유포), 남금주금연자
571-335-3739 (6pm 이후)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철체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 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단독주택 센터빌 CVS 근처 인터넷, 윗층큰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애넌데일 H mart 옆 방 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 유포 \$700, 직장다니는 남/녀, 즉시 입주
703-350-1986

Fairfax/Burke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바람
571-214-0188

사무실/점포 렌트

애넌데일 오피스 렌트 (쉐어) 사용공간 톨2개, 리셉션, 화장실, 부속실, 스킨케어, 한의원, 네일, 병원 적합.
703-989-1933(애니)

애넌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애넌데일 한강뒤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애넌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싱글/타운/콘도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애넌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총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애넌데일 H mart 옆 콘도 매매 (owner) \$340,000 방 2 화 2 세탁기 1218 SF. Condo fee \$390
703-350-1986

1.Coming Soon 애넌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레블러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커히트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 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미셸 & 케빈 신 부동산 건물소유하며 비즈니스 하세요! 사립센터 / 창고,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703-395-3128 / 571-243-5797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립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렐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Sale Price: \$290,000 ·Weekly's sales: \$6300. (평균)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 입니다
▶571-421-0863

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중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 팝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

글렌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예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금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1. 메릴랜드 자이언트 엄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 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 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췌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버크레이크 웰더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리), MD 타주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 보호자 봉사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들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신선한 야채 배추, 무, 갓, 알타리무를 농장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다. 교회, 식당 환영
240-796-009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 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 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 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시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의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무빙세일 역 이민 관계로 가구 및 생활용품 을 정리합니다.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세탁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LG UHD AI ThinQ 65" 4K Smart TV \$230 거의 새것. TV original box/case. 571-232-6071(문자요망)

건축/페인트/마루

▶▶A HOME STAR CONSTRUCTION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택터 MR. SONG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득/가스검사

JD STAR 소득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넷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 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마루

토달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우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슈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벽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사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 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넌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벽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우리

JK유리 & Window 상업,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중앙유리 샤워도어, 자동차,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샤워도어, 자동차,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덜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tay up late: 늦게까지 안자고 있다

(Joel walks into the classroom and sees his classmate Daniel ...)

(조엘이 교실에 들어가 동급생 대니얼을 본다...)

Daniel: Hi Joel.
대니얼: 안녕 조엘.
Joel: Oh hi Daniel.
조엘: 안녕 대니얼.
Daniel: You look beat.
대니얼: 피곤해 보이네.
Joel: I am. I stayed up late last night.
조엘: 피곤해. 어제 늦게까지 안자고 있었거든.
Daniel: Why?
대니얼: 왜?

Joel: I was studying for today's test.
조엘: 오늘 시험 때문에 공부하고 있었어.
Daniel: Don't worry. You'll ace it.
대니얼: 걱정하지 마. 아주 잘할 거야.
Joel: I hope so. I have to pass this class.
조엘: 그랬으면 좋겠어. 이 수업 잘 통과해야 돼.
Daniel: You'll do fine. After the test we'll celebrate over pizza.
대니얼: 잘 할 거야. 시험 본 후 축하하는 겸 피자 먹으러 가자.

Joel: I hope you're right.
조엘: 네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기억할만한 표현
▶ you look beat: 피곤해보이다
"Did you get enough sleep last night? You look beat."
(어제 밤에 충분히 주무신 거예요? 피곤해보이네요.)
▶ (one) will ace it: 시험에서 A를 받을 것이다. 시험을 잘 볼 것이다

"She's a very good student. She'll ace all her tests."
(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시험에서 A 받을 겁니다.)
▶ celebrate over (something): ~를 축하하다
"If you get that job we'll celebrate over dinner."
(당신이 그 직장을 얻게 되면 우리 저녁 먹으면서 축하합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가로열쇠

(1)뱃을 사림에 믿음으로써 함. 세속 오계의 하나. □□□□ (4)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려움. 두 사물이 비슷하여 낮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 (7)전화로 말을 주고받음 (8)배가 와서 닿는 곳. 나루터 (9)장치나 설비 따위를 갖추어 차림 (10)어지럽게 갈래가 저서, 한번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오기 어려운 길 (11)관판하고 넓게 썬 나뭇조각. 널빤지. 그 집 대문은 ~를 영성히 짜 맞춘 것이다 (12)혼기에 이른 남의 집 처녀. 학문과 재주가 뛰어난 여자 (14)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 돼지 ~ (15)물로 얼굴과 손 따위를 씻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대 (16)사람을 태우고 사람이 끄는 수레 (17)숨이 가쁘고 기침이 나며 가래가 심한 병 (18)어린이에게 더러운 것을 가리킬 때 이르는 말 (20)새, 잡자리, 비행기, 선풍기에 이것이 있지요 (22)같은 나이 (23)적수가 없음. ~ 함대 (25)여행 중에 있는 사람 (26)같은 생각 (27)머리털이 속대강이 같이 험수룩하게 마구 흐트러짐. □□□□ (28)무덤이 많은 곳이나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곳. □□□□

세로열쇠

(1)길을 걸어가갈 때든지 운전할 때 꼭 지켜야 하지요 (2)동식물이나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 이솝 ~ (3)상 위에 놓고 가운데에 솟불을 담은 통이 있고, 통 둘레에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아서 끓이면서 먹는 호화로운 탕. 열구자탕 (4)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 대거나 뒤엎겨 뒤죽박죽이 된 곳 (5)과거를 보는 마당에서 선비들이 질서 없이 들끓어 뒤죽박죽이 된 곳 (6)소의 안심에 붙은 고기. □□추□ (13)오물이 물에 씻겨 내려가게 처리하는 방식 (14)푸성귀를 다듬을 때에 골라 놓은 갈대. 배추 ~로 끓인 추어탕 (17)천사의 웃은 껌엔 흔적이 없음.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답으면서 완전함. □□□□ (19)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함 (21)사리에 맞지 아니하는 헛소리나 쓸데없는 소리. ~ 불지 마라 (22)여러 사람이 두루 건드리거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 (24)붉은팥 (26)마을 부근에 있는 작은 산이나 언덕. 내 놓던 옛 ~에 오늘 와 다시 서니/산천 의구란 말 옛 시인의 허사(虛辭)로고/에 섰던 그 큰 소나무 베어지고 없구료(이은상)

스도쿠

	5		6					
6	4		1			8	3	9
			8	2				1
5	1	8	4					7
2	7			1				
		3			7			5
	2					1	4	6
	8	7			1	2	9	
	9		3					8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7	8	5	2	4	3	9	6	1
3	6	2	1	5	9	7	8	4
9	4	1	8	6	7	5	2	3
1	5	4	7	8	2	3	9	6
8	9	3	6	1	5	4	7	2
2	7	6	9	3	4	8	1	5
5	1	9	4	2	8	6	3	7
6	3	8	5	7	1	2	4	9
4	2	7	3	9	6	1	5	8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영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영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영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영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정월기구 수리/판매점**
30년 한주인 운영, 특가
가든그로브 (714)788-4336

기타 지역

매매 **미용실-LA한타근처**
가격:\$4만(네고가능)
(818)288-3762

구인

급매 한국택배
FEDEX/ MAILBOX
AT&T/ SPECTRUM
11년간 운영, VALLEY 지역
트래픽/ 포텐셜 많은장소
가3만 (213)572-7977

30년 이상된 미용재료상
안전한 라티노 지역
역적: 인벤토리만!
LA 지역 (818)746-0521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숙/숙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 숙식제공
알래스카 주노지역
(907)209-1920

식당 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환영, 숙식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주방장
숙식제공, 조리아주지역
(646)229-2708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박학박사허워드리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희유
1-213-210-9720/papaaaa.com

서류 대행업소 매매

LA 한인타운 최고의 이민, 법률 서류 대행 사무실

- 가격 \$36만
- 주5일 (9-5시)
- 월순의 \$1만5천
- 30년 운영 은퇴

(213)712-429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살매
최종상당
Up to 40% 혜택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혜택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상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JAWS TOPOKKI Franchise Partner 모집

KOREAN STREET FOOD의 대명사 '쫄스 떡볶이'와 프리미엄 김밥 '바르다 김선생'
복합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법인에서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미국 JAWS BUSINESS를 함께 하실 파트너 분을 초대합니다.

A. AR (Area Representative) 모집
해당 State에서 JAWS Business 가맹 사업을 총괄하실 Business Partner를 모집 합니다.
(IL, NY, TX, MD, VA)

B. 미국 매장 현황

1. The source Mall (CA)
2. LA K-Town (CA)
3. Balboa H-mart San Diego (CA)
4. Johns Creek (GA)
5. Suwanee (GA)
6. Mall Corners (GA)
7. Tampa Lotte Mart (FL)
8. Haven City Rancho Cucamonga (CA) 7월 오픈
9. Palisades Park (NJ) 7월 오픈
10. Irvine H-mart (CA) 7월 오픈
11. Haven City West Covina (CA) 8월 오픈
12. Urbana H-mart (IL) 9월 오픈 (가맹 모집 중)
13. Orlando H-mart (FL) 10월 오픈
14. Seoul Street Anaheim (CA) 11월 오픈
15. Bonita Mall San Diego (CA) 11월 오픈
16. Harry Hines H-mart (TX) 11월 오픈 (가맹 모집 중)

상담문의 E-Mail : info.tpk@jawsfood.com C.P : 714-715-5595 **JAWS Topokki**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을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솥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